

울산 시민교회 계간지

시민 누리애

세상 모든 영혼을 향한 하나님 사랑

2026.09.AUTUMN
VOL.11



CONTENTS

2026. 가을 Vol.11

누리아의 향연	03	시편 1편
목회 공감	04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과 함께 써 내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1	06	킹즈베이비 / 킹즈키즈 / 드림키즈
쉬어가기	13	표지 소개
교육부서 여름 사역2	14	어린이영어예배 / 소망부 / 파워틴 / 비전틴
집중 조명	22	세린도서관
여름 사진 콘테스트	26	여름 사진 콘테스트
가을호 묵상 특집1	28	킹즈키즈 / 예닮키즈 / 드림키즈
쉬어가기	33	시민 책방
가을호 묵상 특집2	34	파워틴 / 비전틴 / 싱글 / 일반
쉬어가기	42	웹툰 - 묵상, 보이지 않는 성장
목장 탐방	44	민준기 목장
삶의 현장을 찾아서	46	고민정 피부관리실
주차 문화 UP 캠페인	50	Guide 1 - 기본 주차 안내
마음 나누기	52	예수님 영접모임 - 임순례 성도
	54	생명의 삶 - 비전틴 서가희, 황영서, 오하은, 송하준
	60	경건의 삶 - 손다영 싱글 목자
	62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 전천영 집사
	64	이성현 집사 가정
시민블레싱	67	영화 추천
쉬어가기	68	감사의 이유, 하나님의 헤세드 - 윤현락 목사
신학 아티클	70	음악 산책 - 가을, 다시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문화 광장	72	미술 정원 - 사람의 아들
	76	과학 플러스 - 인공지능이 일상이 된 시대
	79	생각하는 독서 - 당신은 혼모노입니까?
	82	건강 톡톡 - 내 신장은 괜찮을까? 신장이 보내는 침묵의 신호
쉬어가기	84	가을 독서 여행
우리의 도약	86	26년 5월~8월
열방을 향하여	90	복음의 씨앗이 튀르키예에
새가족 소개	96	5, 6, 7, 8월 새가족 소개
쉬어가기	99	누리아 퀴즈 - 가로 세로 퍼즐
편집 후기	100	문서사역부 일동

누리아의 향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과 함께 써 내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담임 목사 김창훈

사랑하는 울산시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성경이나 <복 있는 사람>을 펼쳐 말씀을 묵상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밀린 숙제를 억지로 해치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이야기하자”라며 내미신 초대장에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그 초대에 응하는 순간, 우리 삶의 이야기는 조금씩 다시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얼마나 우리는 성경을 자판기처럼 대할 때가 많았습니까? 동전을 넣듯 몇 구절 읽고, 내가 원하는 답이 툭 떨어지기를 원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 형편에 맞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말씀을 끌어다 쓰고 싶기도 했습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우리가 상대를 대하는 두 가지 방식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나누는 ‘너’로 마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필요할 때 쓰고 마는 ‘그것’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것’의 자리에 내려놓는 순간, 대화는 사라지고 거래만 남습니다.

진짜 묵상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잠잠히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써먹을 교훈 하나는 건져야 하는데’ 하는 조바심을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을 건네시는지, 그저 귀를 열어 두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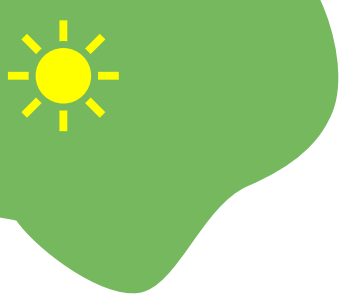
그렇게 앉아 있으면 말씀은 우리 속을 세밀하게 비추어줍니다. 겉모습만 훑는 것이 아니라 속을 그대로 찍어내는 CT 촬영처럼 말입니다. 말씀은 “그 상황에선 나도 어쩔 수 없었다”라며 겹겹이 둘러놓은 변명을 한 겹씩 벗겨냅니다. 말씀의 수술칼이 내 마음을 다루면, 위선과 거짓과 교만의 썩은 부분이 도려내지느라 마음에 통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복된 순간입니다. 부끄러운 자리가 드러날 때, 더러운 부분이 도려내질 때, 그 자리로 은혜가 흘러들기 때문입니다. 상처에 약을 바르려면 먼저 소매를 걷어야 합니다. **어설픈 자기 위로 뒤에 숨지 않고 말씀 앞에 나를 그대로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기쁨이 시작됩니다.**

한 가지 더 묵상을 위한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성경을 ‘옛날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밋밋했던 말씀이 훨씬 생생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와 아비멜렉 앞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에게서 내 모습을 발견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이자 나를 파멸시키려고 달려드는 압살롬 앞에 복잡다단한 감정을 느꼈던 다윗에게 나의 마음을 대입해 보십시오. 가로등 하나 없던 갈릴리의 캄캄한 밤, 안식일이 끝나기만 기다리다가 아픈 가족을 들쳐 업고 예수님께 달려가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발밑의 흙먼지, 흔들리는 등불, 혈떡이는 숨소리. 그 간절함이 마음에 그려지는 순간, 말씀은 지면 위의 글자에서 걸어 나와 오늘 나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자면, 건강한 묵상은 백파이프와 비슷합니다. 백파이프는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주머니에 공기를 가득 채워 둡니다. 그래야 연주자가 숨을 고르는 동안에도 소리가 끊기지 않습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씨먹을 지침 하나를 겨우 건져 올리는 데 급급하기보다, 평소에 말씀을 마음 주머니에 넉넉히 채워 두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평소 채워둔 말씀이 있어야지만, 뜻밖의 고난이 찾아올 때, 어느 길로 갈지 몰라 서성일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분주한 사무실, 치열한 일터, 아이들의 웃음과 울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는 가정. 아무리 평범한 삶의 자리라도 말씀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써 내려가는 특별한 집필실이 됩니다. 내일 아침에도 묵상의 펜을 들고 어전 회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이라는 백지 위에,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한 눈부신 명작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육목자들 - 킹즈베이비 -



강현수 목사



올해 킹즈베이비 여름성경학교는 7월 11일 토요일과 12일 주일 양일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아이들에게 말씀, 공과,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에 아이들이 즐거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기쁨과 보람을 느꼈지만, 특별히 제가 무척 감사했던 점은 교육목자님들의 헌신적인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6월 28일 주일 오후 3시 30분, 킹즈베이비실에서 온라인 교사 강습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한나절이 넘도록 교회에 머물며 피곤한 시간대였을 텐데도, 누구하나 불평하는 분 없이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강사의 멘트를 적극적으로 따라 하고, 목사님의 말씀엔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모습을 보며,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실

교육목자님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감사하였습니다.

성경학교의 핵심 프로그램이 토요일에 집중되어 있고, 부서실 미화, 교보재, 연극 소품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 부서 특성상, 다가오는 일주일엔 무척 바빴습니다.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느라 저녁에 지칠 법도 한데, 주중에 모여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의 손길에는 활기가 돋았습니다. 오전부터 준비하시는 분들, 퇴근하고 합류하신 분들이 뭉쳐서 준비에 탄력을 붙였습니다. 준비하는 내내 저는 누구도 “성경학교 하루를 위해 이렇게 고생한다”, “젊은 선생님들도 와야 하는데” 푸념 섞인 말을 하는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익살스러운 유머로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어 가며 긍정적인 언어로 뻥센(?) 시간을 지혜롭게 감당하셨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다’ 킹즈베이비 교육목자님들은 아이들에게 지식만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소 천국을 살아내며, 믿음의 정수를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분들이었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

킹즈베이비



어벤져스가 생각납니다. 어벤져스에 등장하는 히어로들 가운데는 아이언맨이나 헐크처럼 막강한 화력으로 적들을 무찌르는 캐릭터가 있고, 블랙위도우, 호크아이처럼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뛰어난 전술로 팀 승리에 기여하는 히어로들도 있습니다. 저는 킹즈베이비 스텝을 포함한 교육목자진이 어벤져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뛰어났다고, 성경학교 준비에 기여했다고 다른 분에게 눈치를 주거나 생색내거나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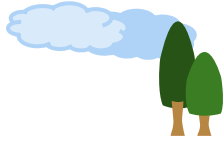
이처럼 화목한 분위기의 중심에는 최연식 부장 교육목자님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 킹즈베이비 관련 안건으로 임원과 소통하기에 앞서 먼저 부장목자님께 의견을 묻곤 합니다. 교육목자 그룹의 리더로서 부장의 생각과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제게 자주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육목자님들께(혹은 아이 부모들께) 부담을 안 주고 싶습니다.” 어느 날에는 장난스럽게 “내가 교육목자님들 부담스럽게 만드는 건 다 없애버릴 거야!”라고 하시는데 어찌나 웃기던지요. 동시에 참으로 멋진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는 가운데 함께 도우며 사역하는 은혜로운 이곳 현장이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한 것에 비하면 야속하리만큼 순식간에 지나간 여름성경학교였지만, 아이, 부모, 교육목자, 스텝 모두가 즐겁게 보낼 수 있었던 순간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보람찬 사역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동역자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아이들, 킹즈키즈



정진우 강도사



지난 7월 25~26일에 울산시민교회 본관에서 킹즈키즈 여름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는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관한 주제로 성경학교를 하는 만큼 작년과 비교해 달라진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매 설교 후에 기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5~7세 아이들은 기도회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회를 너무 엄숙한 분위기로 이끌면 아이들이 겁을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너무 가벼운 분위기로 진행하면 아이들이 제대로 기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기도가 서툰 아이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지도해야 할지도 고민이 들었습니다. 킹즈키즈 교사들과도 저의 이런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

고 교사들이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이들은 듣고 이해하기보다 보고 이해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학교 당일, 첫 설교를 마치고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불이 꺼지고, 잔잔한 반주가 공간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기도회를 위한 몇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기도 방해하지 않기’, ‘기도가 힘들면 선생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기’ 등이었습니다. 기도회를 시작하자 작은 목소리지만 아이들의 기도 소리가 눈을 감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눈을 뜨고 다른 짓을 하고 있는 아이도 있었지만 진지하게 눈을 꼭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지시고 돌보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너무 어리게만 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

킹즈키즈

성경학교 둘째 날인 주일에도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회는 첫 번째 기도회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이들이 자신들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교역자를 향해 손을 뻗고 기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성이나 영성 모두 아직 성숙하지 못했지만 아이들의 부족한 기도마저도 사용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더 나아가 실상 저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킹즈키즈 교사들, 아이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자라야 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니 교사들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마도 저와 같은 마음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교사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준비하면서 우려되는 지점이 많았습니다. 한 번도 유치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기도회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었기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괜히 아이들이 기도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기우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 기도를 배워두는 것이 아이들의 신앙에 중요하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익숙해져서 자신의 길을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지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과 관련하여 기도는 무엇보다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는 이번 성경학교에서 부담되면서 의미 있는 순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제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기도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 실제로 기도를 해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역자와 교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사들과 봉사자들의 수고,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라 믿습니다. 울산시민교회의 다음 세대인 킹즈키즈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이 기회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킹즈키즈를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백성으로 길러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

드림키즈, 여름성경학교를 마친 아이들의 고백



서민영 목사



26년 여름 드림키즈 성경학교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예요!’ 라는 주제로 7월 10일(금)~12일(주일) 교육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 어떠한 것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래는 여름성경학교를 마친 아이들의 고백을 나누고자 합니다.

(6학년 서래언) 예배, 기도회, 공과, 물놀이, 대그룹, 취침이 있었는데 공과, 대그룹, 물놀이가 재미있었다. 안내해 준 선생님과 설교해 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6학년 김민준) 성경학교가 재미있었다. 처음 할 때는 싫고 재미없었는데 성경을 듣고 배우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교회에 가기 싫지만, 성경학교에 오니 유익하고 재미있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죄 없이 죽어서 안타깝다.

(6학년 이윤서) 5학년 이후로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친구들이 먼저 말도 걸어주고 너무 잘해줘서 고마웠다. 말씀 듣기와 기도도 재미있어서 앞으로도 교회 와서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고 말씀도 더 잘 들어야겠다. 성경학교에서 너무 좋은 경험을 하였다. 앞으로 최대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더 성장하고 싶다. 공과 공부도 너무 재미있었다.

(6학년 원예은)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자유시간을 더 주시고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해주셔서 굉장히 즐



교육부서 여름 사역

드림키즈

겁고 재밋고 멋지고 좋았고 맛있고 다채롭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6학년 박단아) 기도하면서 내가 나이가 많아졌다는 것을 알았다. 수영이 재미있었다. 쉬는 시간에 어떤 친구가 춤을춰서 모두 다 웃었다.

(6학년 양예인) 예배, 공과, 기도회만 참여해서 아쉬웠지만,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있어 좋았다. 이번이 마지막 드림키즈 성경학교여서 아쉽지만, 중등부 가서도 드림키즈에서 배운 대로 열심히 해보아야겠다.

(5학년 박한별) 다음에 또 오고 싶다.

(5학년 동호담) 특히 기도회가 기억에 남는다. 뭔가 마음이 신기하고 집중이 잘됩니다. 제일 재미있던 것은 물놀이였다. 다음에는 더 즐겁게 하면 좋겠다.

(5학년 박지민) 다음에도 수영장에서 더 많이 놀고 싶다.

(5학년 진실로) 많은 걸 배웠고 물놀이와 공과도 재미있었고 친구들과 노는 것도 재미있었다. 친구들과 교회에서 자니까 더 흥미진진하고 즐거운 것 같다.



(5학년 이예지) 재미있었다. 그렇지만 기도회가 너무 짧았다. 수영 뒤에 보드게임도 재미있었고 친구들과 자는 것이 재미있었다. 기도회 시작 때 기도 안 하고 싶은 친구들은 나가라고 하시고 기도회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좋았다. 치킨도 맛있었다.

(5학년 박하영) 기도회가 짧았다. 조금만 더 길면, 더 충만하고 은혜를 받았을 것 같다. 공과공부를 하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5학년 김소담)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다른 때보다 더 기억에 남는다. 전에는 별 감흥이 없었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맞는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된 것 같았다. 기도회 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즐거웠고, 기도회가 더 길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가끔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여유도 생겼다. 친구들과 자고 선생님과 한 공간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니 재미있었다. 수련회를 통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어 좋았다. 앞으로도 수련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

드림키즈

(4학년 김시은) 회개 기도할 때, 내 죄가 너무 많아 놀랐다. 하지만 물놀이를 하면서 기분이 다시 좋아졌고, 재미있었다.

(4학년 이소유) 기도회하고 맛있는 것 먹게 해주신 선생님과 목사님 감사하다. 다음에는 어떤 것 할지 기대가 된다. 대그룹 활동 재미있었고, 기도회 지루하긴 했지만 계속하다 보니 점점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비록 1박은 못했지만,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해서 재미있었다.

(4학년 고예리) 첫날에는 살짝 피곤하고 지겨웠는데, 재미있었다. 성경학교를 통해 친해진 친구들과 많이 생겼다.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재미있었고 저녁도 맛있었다.

(4학년 서제이) 성경학교 처음 와봤는데, 예배 및 기도회도 있었지만 간식도 맛있고 물놀이가 제일 재미있었다. 떡볶이도 맛있었다. 오길 잘했다. 친구들과 하는 시간도 있었다. 다음 성경학교도 재미있게 할 거다.

(4학년 김다예) 기도회를 하며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4학년 우서운) 원래 기도도 별로 안 했는데, 더 열심히 하게 되어 좋았고, 다음에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친구들과 노는 것도 재미있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걸 기억하고 살겠다. 이번 성경학교를 하며 알게 된 친구들도 많은데 그 친구들과도 잘 지내게 해주시고, 다음에도 새로운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4학년 손채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곁에 있어 정말 좋아요.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 표지 그림 전수진 -

비가 내리면 어떡하지?

김진원 강도사



여름성경학교가 다가올수록 저를 포함한 모든 교육목자들의 입에서 반복해서 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면 어떡하지?”

올해 어린이영어예배 여름성경학교는 대부분의 일정이 야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날씨에 따라 프로그램 전체가 바뀔 수도 있었기 때문에 교사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일기예보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육목자들이 정말 오랜 시간 마음을 쏟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성경학교 시작 전부터 장소를 정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참가자와 봉사자를 모집하고, 코너 활동을 준비하고, 반을 편성하고, 차량과 식사, 안전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게 되면 모든 준비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고, 마땅한 대책도 없었기에 걱정이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런 걱정 속에서도 교육목자들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학교를 사흘 앞두고 모든 교육목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처음 모여서 기도드렸던 건 “하나님, 성경학교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고 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비가 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화창한 날씨가 허락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프로그램이 잘 준비되고 날씨가 좋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저 하나의 ‘행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날씨보다 점점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학교 당일이 되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폭우 예보가 있었지만 아침이 되자 거짓말처럼 구름이 걷히고 따듯한 햇살이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선선한 바람과 함께 준비한 모든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교사들이 수고하여 준비한 코너 활동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아이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배워가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학교를 마치며 교육목자들이 가장 많이 나눈 말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준비한 일정을 모두 진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이 순례자가 되어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코너 활동을 통해 귀한 진리를 배울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제 마음에 가장 크게 남은 감사는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창한 날씨를 주신 것보다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시간 동안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신 그 시간이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고백을 교사들과 함께 드릴 수 있었던 시간이 무엇보다 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날씨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올해 여름성경학교에서 제게 큰 기쁨과 감사는 모든 준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가 오지 않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가운데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진행하게 하신 사실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다시 한 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김금분 전도사



기도로 준비한 풍성한 시작

첫날 새벽기도회부터 많은 교육목자들이 모여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출근하는 지체들을 위해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찰떡, 찰밥, 옥수수, 과일 등을 손수 준비해 주신 교육목자님들의 아름다운 섬김 덕분에 일주일 동안 풍성한 아침을 나누며 오직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캠프 속에 가득했던 8가지 감사 제목

첫째, 날씨의 은혜: 비 올 확률 80%였던 기상청 예보와 달리, 천기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틀 동안 비 없이 좋은 날씨 속에서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둘째, 축제 같은 예배: 담임목사님의 우렁찬 구호와 격려 속에 소망부 성경캠프 예배는 기쁨 가득한 축제였습니다.

셋째, VIP 8명 친구들의 참석: 교육 목자님들과의 1:1 매칭을 통해 안전하고 사랑가득하게 섬겼습니다. 특히 영어만 사용하는 VIP 친구에게는 맞춤형 스태프를 붙여주어 편안히 적응하도록 도왔습니다. 부모님께서 아이가 한곳에 이렇게 오래 머문 적은 처음이라며 감격해 하셨습니다.

넷째, 천지창조 코너 활동: 1일부터 6일

까지의 창조 과정을 직접 보고 만지는 오감 체험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구체적으로 배웠습니다. 성경학교 당일이 되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폭우 예보가 있었지만 아침이 되자 거짓말처럼 구름이 걷히고 따뜻한 햇살이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선선한 바람과 함께 준비한 모든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교사들이 수고하여 준비한 코너 활동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아이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배워가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섯째, 복음 마술쇼: 눈을 땔 수 없는 마술을 통해 하나님, 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쉽고 재미있게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여섯째, 신나는 레크리에이션: 철가방 퀴즈 등으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웃음 가득하고 유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곱째, 시각 자료를 통한 영화: 장애를 극복한 닉 부이치치의 삶과 천지창조 만화를 보며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여덟째, ‘인생네컷’ 사진 촬영: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고백과 함께, 아이들의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표정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캠프가 끝난 주일 아침, 몇몇 어머니들께서 아이가 눈뜨자마자 소망부 예배 가자고 떼를 써서 달래서 왔다고 캠프가 정말 즐거웠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시간과 마음 정성을 다해 수고해 주신 소망부 교육목자님들과 스탭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후쿠오카 비전트립을 다녀와서

최하늘 파워틴



안녕하세요. 저는 파워틴 강혜숙목장 1학년 최하늘입니다. 저는 이번 일본 비전트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많이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먼저 이번 비전트립을 가기 전 두려움과 설렘이 가득했는데, 저희가 비전트립을 가기 전날 일본은 7.1 강도의 지진이 났고, 후쿠오카 쪽으로는 큰 태풍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정말 컸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비전트립을 준비해서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안에 성장하게 해주세요

비전트립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일본 유치부, 유년부 여름성경학교를 도운 일과 패스파인딩을 한 것인데요. 그 이유는 유치부, 유년부 아이들을 도우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해보기

도 했고, 앞으로 쭉 성장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는 아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한 것이 기억에 선명하게 남습니다.



교육부서 여름사역 파워틴

패스파인딩은 후쿠오카를 조원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미션을 수행하고 후쿠오카를 위해 기도하는 활동이었는데, 저희 조가 함께 협력하여서 모든 미션을 통과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 비전트립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정말 많은데 우선 제게 어떤 상황이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걸 알게 해주셨고,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을 위해, 후쿠오카 비전 처치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일본이란 땅에 기독교가 전파되고 후쿠오카 비전 처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번 비전트립을 안전하게 다녀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윤현락 목사



비전틴의 한 목장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목장은 전도되어 온 새 친구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이른바 ‘수련회 개근생’도 있습니다. 평소 비전틴 예배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고등학교 1학년 여름부터 3학년 여름까지 수련회만큼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지난 겨울 수련회에서 이미 얼굴을 보았기에 이번에 다시 만나 무척 반가웠습니다.

기존 비전틴 학생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평소 예배에 잘 나오지 않던 친구들이 수련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준비하는 입장에서 무척 기쁜 일입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장기 결석 중인 학생들과 새 친구들이 수련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참석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응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할 때는 신나게 웃고 떠들며 누구보다 즐겁게 놀입니다. 그러나 기도 시간에는 눈을 멀뚱히 뜬 채 이리저리 둘러봅니다. 긴 설교를 들을 때는 몇 번씩 들락날락하고, 신나는 찬양을 할 때는 힘껏 함성을 지르며 분위기를 띄웁니다.

그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교회에 꾸준히 나오고 신앙이 자라도록 돕고 싶은데,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아이들은 수련회와 같은 행사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재미있어야 교회에 올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아이들이 기쁘게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즐거운 만남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즐거

움만으로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들의 마음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당장은 별다른 반응이 없어 보여도, 들었던 말씀과 경험한 사랑이 언젠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싹트기를 소망합니다.



그 목장의 교육목자님은 학생들 참석할 수 있도록 수련회비를 사비로 대신 내주기도 하십니다. 아이들이 수련회에 올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일까요. 신앙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이던 학생들이 조금씩 비전틴 예배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두 명은 4주 이상 출석하여 정식으로 목장에 등반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목자님은 매 주일 학생들이 올지 오지 않을지 모르면서도 목이 빠지도록 기다립니다. 한창 설교를 하고 있는데, 키 큰 학생 몇 명이 조용히 예배당으로 들어와 목장 자리에 앉습니다. 뒤늦게 들어온 아이들을 바라보는 교육목자님의 표정이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기다리던 자녀가 집으로 돌아온 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얼굴 같았습니다.

아마 교육부서의 모든 교육목자님이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기다리고, 한 번 더 연락하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돕고, 사랑으로 자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 영혼이 교회에 오고 신앙 안에 자리 잡기까지는 누군가의 오랜 기도와 기다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섬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재미있는 수련회를 기대하며 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환영해 주는 선생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사랑도 조금씩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잘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받는 기쁨을 누리고, 언젠가는 자신이 받은 사랑으로 또 다른 친구를 품고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지역사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 세린도서관

류소영 집사

신규채 튀니지 목장



Q 안녕하세요? 류소영 팀장님,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팀장을 맡게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세린도서관을 맡게 된 계기나 남다른 각오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저는 사실 도서관 봉사가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책이 가득한 멋진 공간을 누리는 일이니까요. 그게 좋아서 도서관에 드나들다 보니 어쩌다 올해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나 남다른 각오가 있어서 된 건 아니고요.

Q 세린도서관은 2011년에 개관을 했죠? 벌써 15년째인가요? 시민 성도님들이 교육관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시작한 게 엇그저께 같은데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난 것 같습니다.

‘세상의 이웃’이라는 도서관의 이름처럼 말이죠. 다운동에서 세린도서관이 갖는 의미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작은 도서관이라는 말이 생소할 정도로 주변 지역에 도서관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동안 세린 작은 도서관이 지역사회에 끼친 순기능적인 면을 자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세린 작은 도서관은 우리 울산시민교회에서 뜻을 내어 세운 특별한 사립 작은 도서관입니다. 설립 당시 중구 1호 사립 작은 도서관이었어요. 하지만 결코 작지는 않아요. 시설이나 장서, 그리고 프로그램까지 어느 하나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립 취지에 맞게 지역 주민과 성도님에게 지식 인프라를 제공하고, 서로 소통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어왔습니다. 그



래서 울산시에서 실시하는 작은 도서관 평가에서도 해마다 최고점을 받았고요. 세린 작은 도서관은 지역사회에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Q 세린도서관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세린 작은 도서관의 운영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일은 오후 5시까지입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성도들과 지역 주민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동아리, 행사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Q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가 4만 권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작은 도서관 중에서는 꽤 많이 비치된 거라고 봅니다. 이 책들을 통해 지혜와 지식의 장이 넓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중점을 두고 비치한 도서들이 있나요?

A 도서관의 배움터이자 쉼터인 ‘반딧불이’ 공간에 예쁜 그림책 북큐레이션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읽으면 재미있고 좋을 뿐 아니라 그림의 아름다움까지 느낄 수 있는 책들을 가려 뽑아 비치해 두었어요. 노안이 와서 글을 잘 못 읽겠다고 하시는 분들, 두껍고 어려운 책은 싫는데 책에서 감동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 코너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책을 읽어 주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크고 포근한 곰인형을 마련했어요. 곰인형 이름은 ‘세리니’예요. ‘세리니’는 도서관에서 어린이 친구들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나가다 책장 앞에 앉아서 누군가 그림책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뿌듯합니다. 그리고 신간 코너 옆에 아직은 작은 공간이기는 하지만 북큐레이션 주제에 따라 책을 별도로 비치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제별 북큐레이션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공간을 구상하고 있어요.

또 영유아실인 ‘옹달샘’에는 책 읽어 주는 로봇 ‘루카’가 두 대나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루카’가 들려주는 그림책을 꼭 체험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루카’ 전용 그림책을 별도 비치해 두었습니다.

Q 네, 얘기를 들으니 우리도 동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우리를 기다리는 곰돌이 세리니와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세린도서관에서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무엇인가요?

A 교회 주보를 통해 세린 작은 도서관에서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 아실 텐데요. 중점적이라기보다는 올해 새롭게 기획한 프로그램이 있어 소개합니다.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화요일과 목요일은 연장 운영을 합니다.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열람실인 ‘아라실’을 개방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용자가 늘고 있어 다양한 저녁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나 교회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예, 요리, 음악, 체육 활동 등을 9월부터 10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한국 문화도 체험하고 같은 나라 또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서로 소통도 하면서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주변 외국인에게 많이 소개해 주시고 외국인 VIP도 초대하시면 좋겠어요.



또한 토요일과 주일에는 어린이, 청소년 이용자들이 독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성도님들께 바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저는 도서관을 운영한 적이 없어요. 팀원 중 한 명이고 봉사자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의 거의 모든 실무는 전문가이신 사서 선생님께서 개관 이후 지금까지 맡고 계셔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또 봉사자들의 손길도 많아 도서관 운영이 원활하고 시설도 쾌적하고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오시면 저희는 언제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책을 읽고 공부도 하고 지치면 쉴 수 있는 세린 작은 도서관을 자주 이용해 주세요.

Q 끝으로 세린 작은 도서관이 나아갈 방향이나 앞날의 기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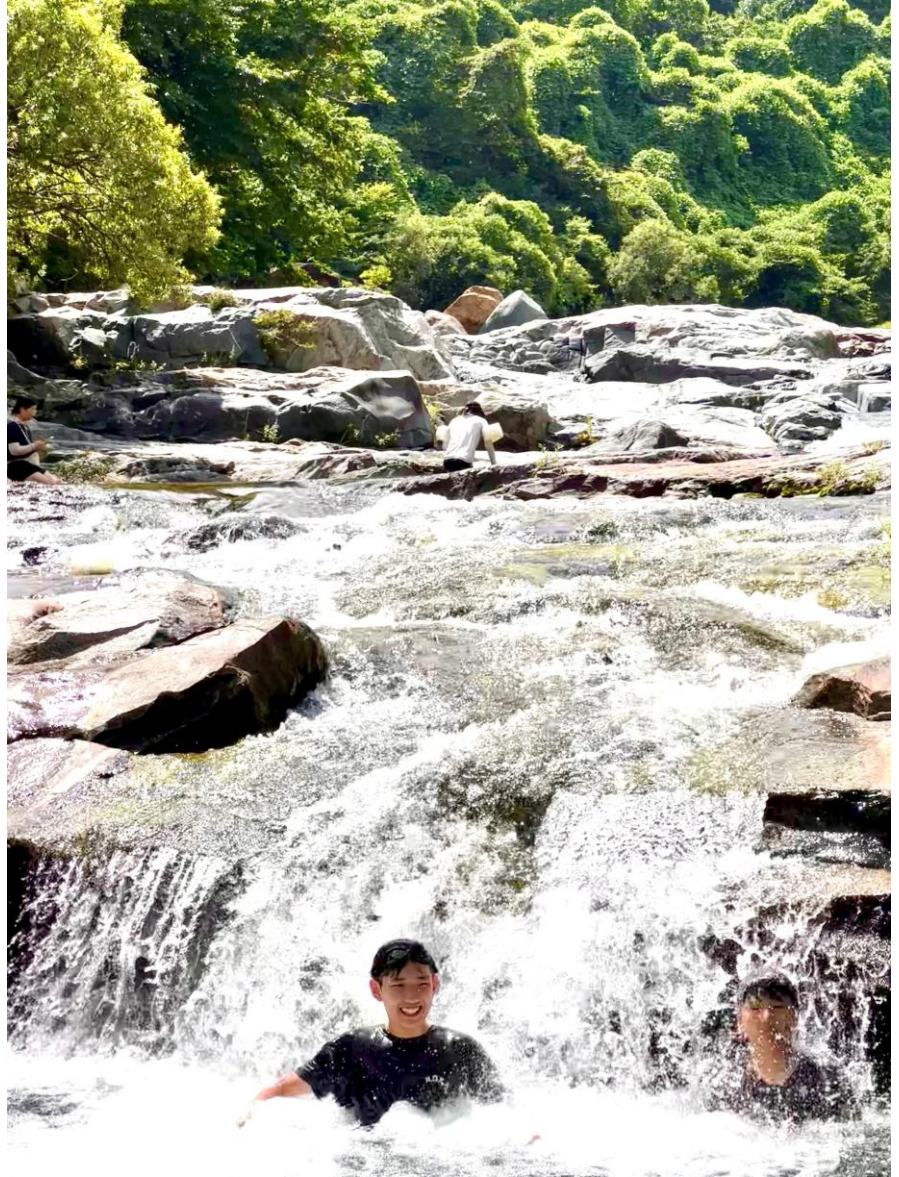
A 도서관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도서관에 활기가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인스타그램과 새롭게 개편한 홈페이지를 통해 도서관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통해 교회의 VIP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Q 네, 세린도서관이 이름처럼 역할을 잘하여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시민교회의 목표와 나란히 가기를 소원합니다.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이 강하다

저마다의 방법으로 건너온 여름 .
울산시민교회 성도들이



《김건한 성도》

한여름 더위를 피해 아름다운 산과
시원한 계곡 가족과 함께 마음껏 즐
기고 왔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름 사진 콘테스트



《김유미 성도》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자연 속에서 가족과 함께 쉼을 누렸던 하루!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의정 성도》

스스로 놀고 마음껏 젖은 열한 살 소년들의 여름



《최연식 성도》

바다수영 후 러닝! 더울수록 정면승부!!



《이한나b 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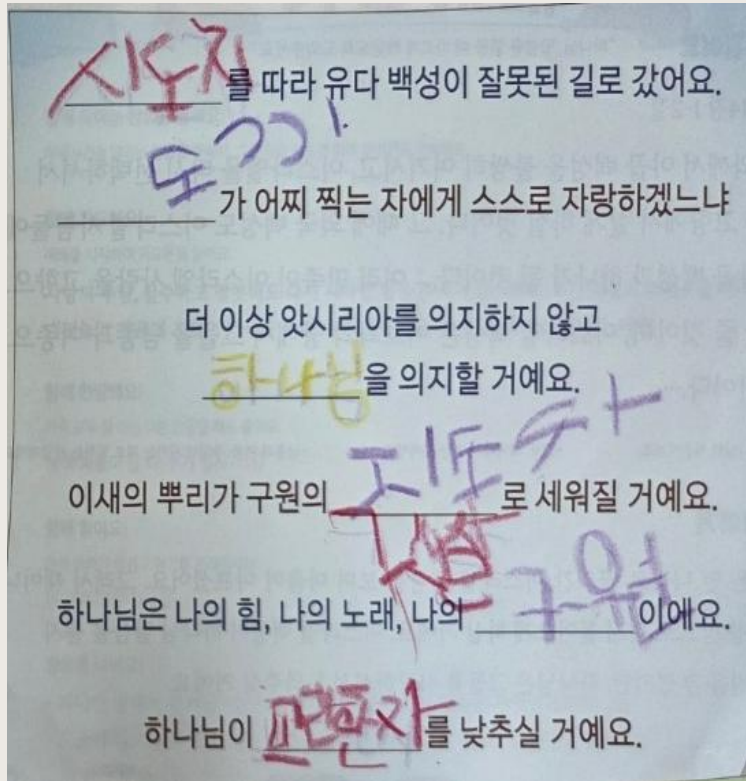
여름성경학교도 식후경



《조보성/김가령 성도》

새벽기도회 때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께서 주신 쌍둥이들, 어느덧 출산 한달을 앞두고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심에 건강한 만삭 임신부!

잘못한 일에 벌을 내리세요 이사야 13장 1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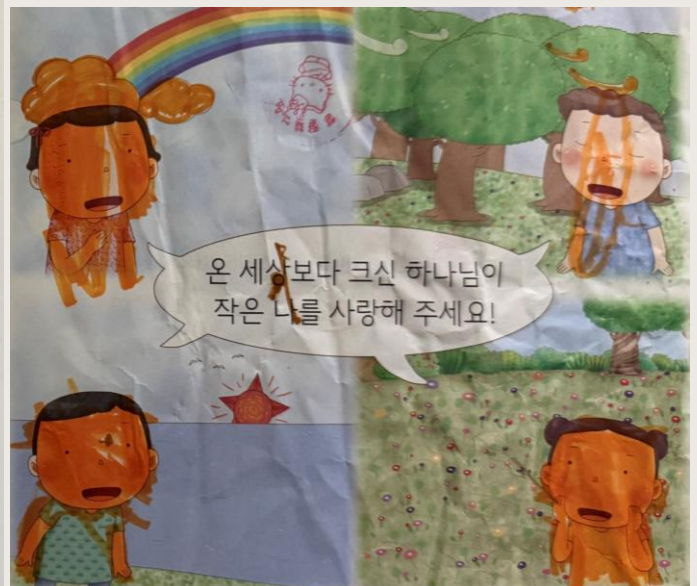


지도자를 따라 유다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갔어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
 더 이상 앗시리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거예요.
 이새의 뿌리가 구원의 깃발로 세워질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실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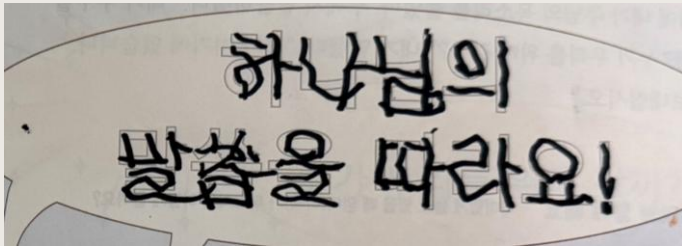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세요 시편 8편 4절



온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작은 나를 사랑해 주세요!



말씀과 반대로 했어요 아사야 5장 20~2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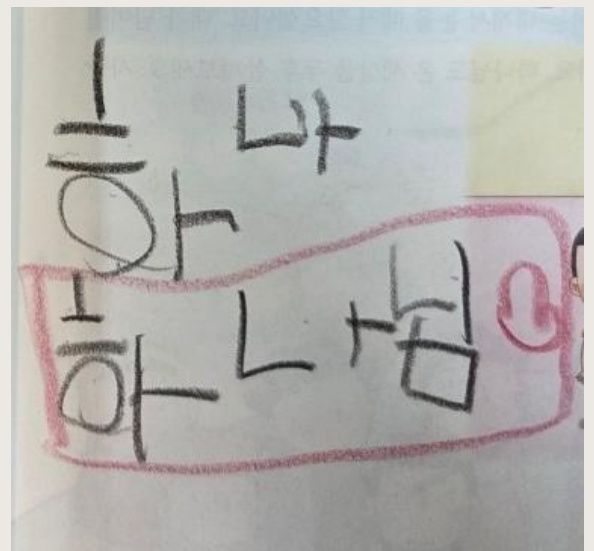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나의 영원한 보호자예요 시편 9편 9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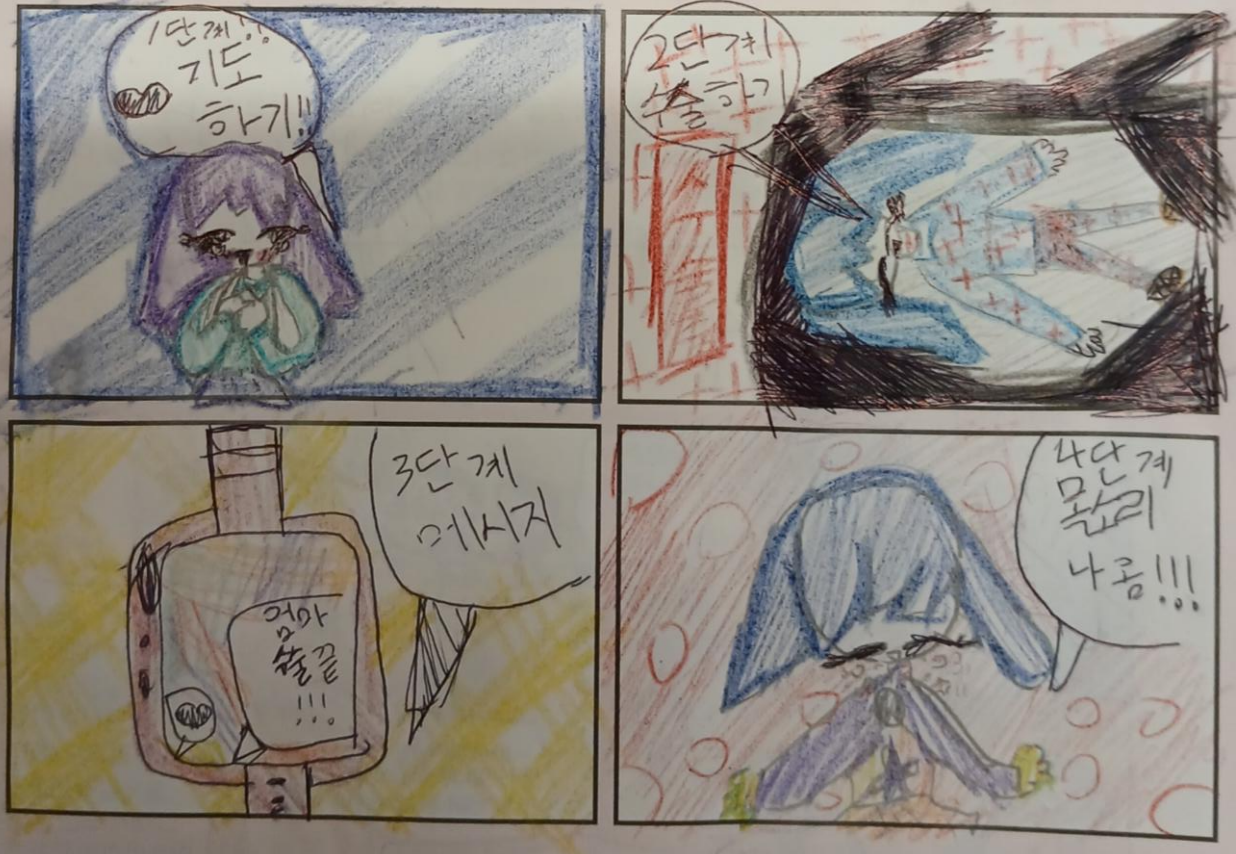
약한 사람들을 위해 싸워 주세요 시편 10편 17절

나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찾나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시편 118편 8~14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일 중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 한 가지를 아래에 네 컷 만화로 그려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요한삼서 1장 1~15절

말씀새싹 >>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은 사람과 책망받은 사람은 각각 누구인가요? (10, 12절)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데메트리오
디오드레베
진리 자체에서요인 정을 받
았습니다. 형들요. 휘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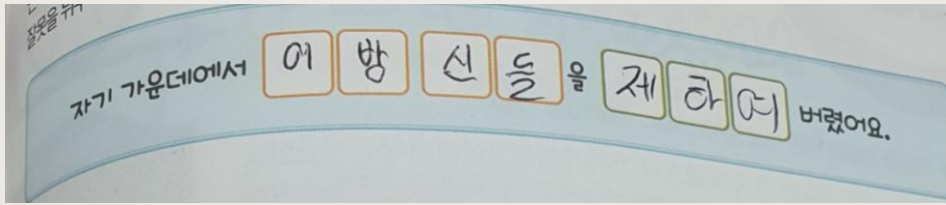
말씀열매 >>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평가할까요? 생각하고 나눠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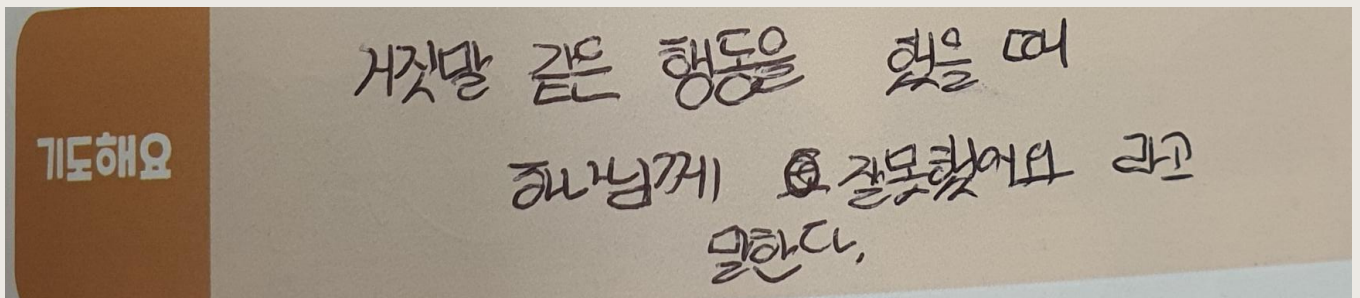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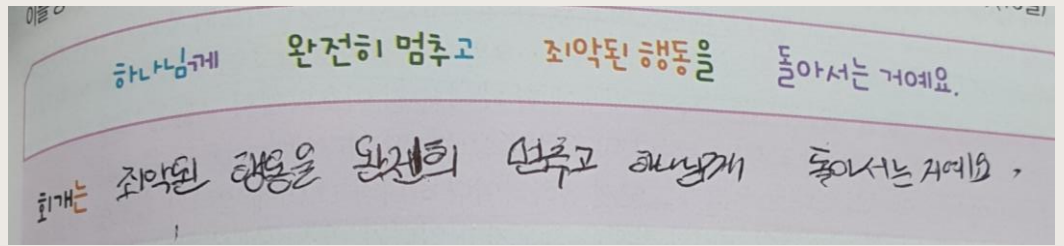


진짜 회개란? 사사기 10장 10-18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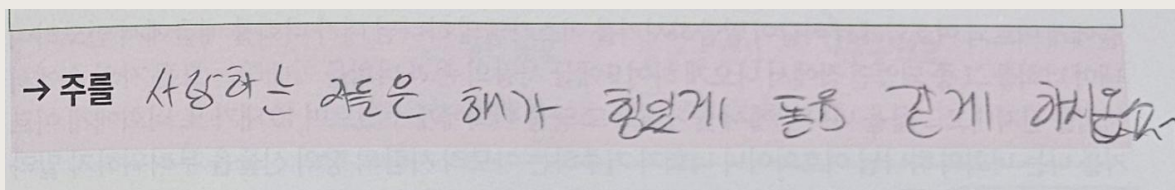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렸어요

회개는 죄악된
행동을 완전히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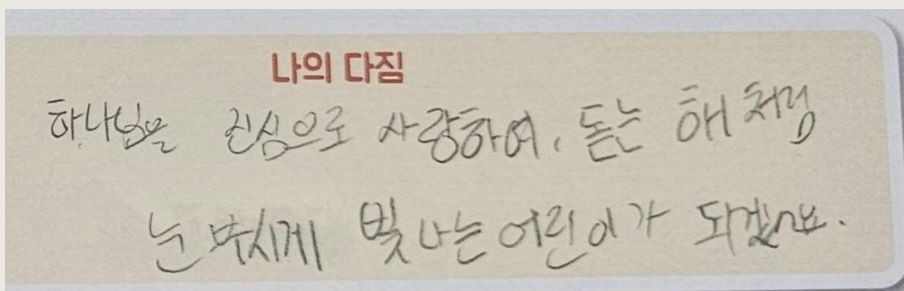


거짓말 같은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한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요 사사기 5장 19-3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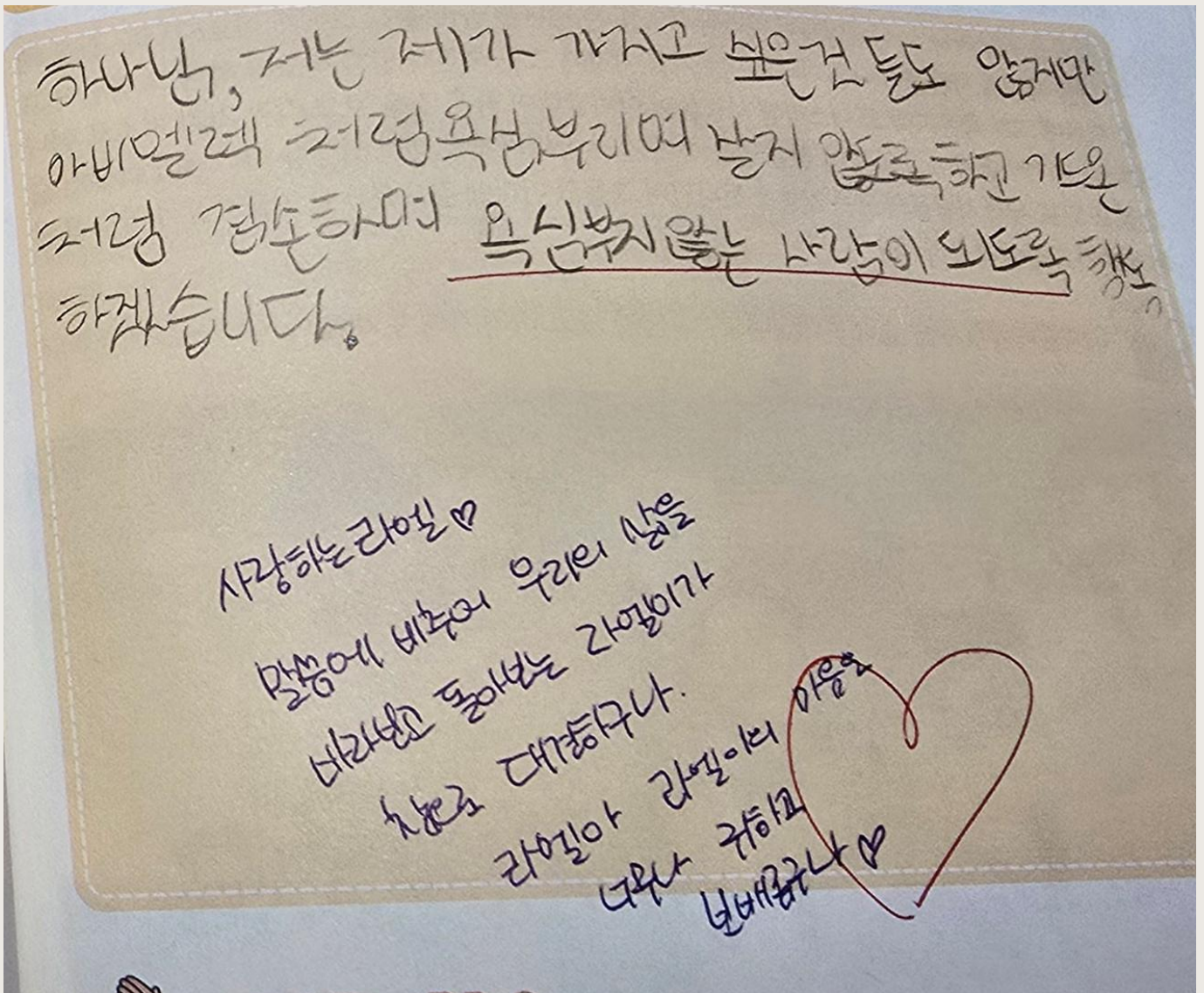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 같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돋는 해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어린이가 되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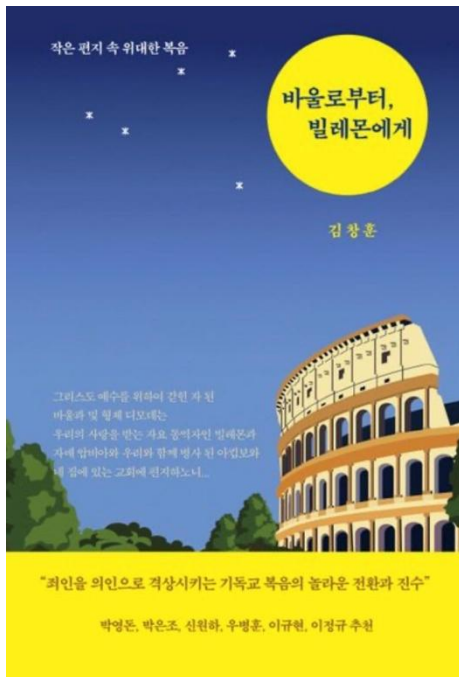
온 세상에 구원의 하나님을 자랑할래요! 시편 22:22-31

하나님, 저는 제가 가지고 싶은 것들도 많지만
아비멜렉처럼 욕심부리며 살지 않도록 하고
기드온처럼 겸손하며 욕심부리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행동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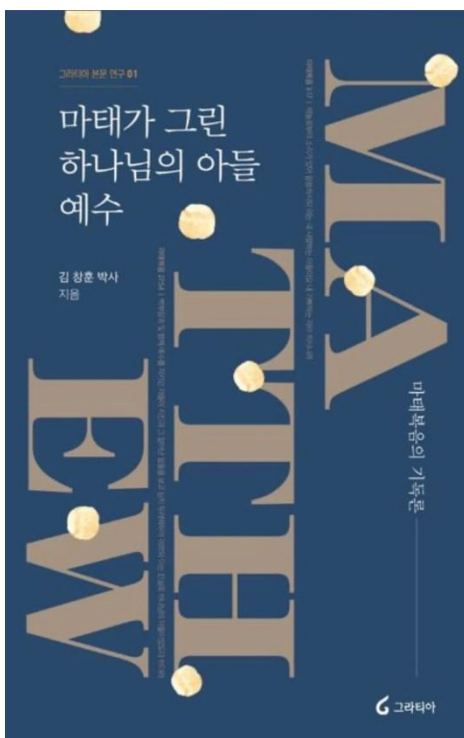
시민 책방

《바울로부터, 빌레몬에게》 김창훈, 좋은씨앗



신약 성경 중 가장 짧은 서신서인 빌레몬서를 통해 복음의 본질을 깊이 있게 조명하는 작품입니다. 김창훈 목사는 바울의 개인적 편지 속에 담긴 화해와 용서, 그리고 복음의 혁명성을 섬세하게 풀어냅니다. 노예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태도는 단순한 권면을 넘어, 복음이 인간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그 안에는 교회의 정체성과 공동체 윤리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작은 편지 속에서 위대한 복음을 발견하게 하는 깊이 있는 신학적 안내서입니다.

《마태가 그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김창훈, 그라티아



마태복음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치밀하게 탐구한 기독교론 연구서입니다. 저자는 마태가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려내고 있는지를 본문 중심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구약과의 연결, 왕으로서의 메시아,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가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며 마태복음의 신학적 구조가 드러납니다. 학문적 깊이를 지니면서도 목회적 통찰을 함께 담고 있어 신학생과 평신도 모두에게 유익한 책입니다. 예수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단단한 기초를 마련해주는 작품입니다.

에스겔 34장 1~10절

김민지 (파워틴)

저는 이번에 에스겔 34장 1~10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읽고,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돌보며 바른길로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읽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목자들은 자신의 유익만 구하고 연약한 양을 돌보지도 않고 병든 양을 치료하지도 않고 흠어진 양을 찾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양들은 보호받지도 못하고 흠어졌고 위험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목자들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 구하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 유익만 쫓고 있는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서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목장 친구들을 챙기고 더 섬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맡겨진 사람을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방치되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다시 깨닫게 되었고, 사람의 겉모습이나 직분보다 그 사람이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보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양들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양들을 찾으시고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고 나는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것처럼 나도 주변 사람들을 더 관심 있게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삶을 살고 싶다 생각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감당하며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칭찬받는 삶보다는 뒤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23절 설교 묵상

권시아 (파워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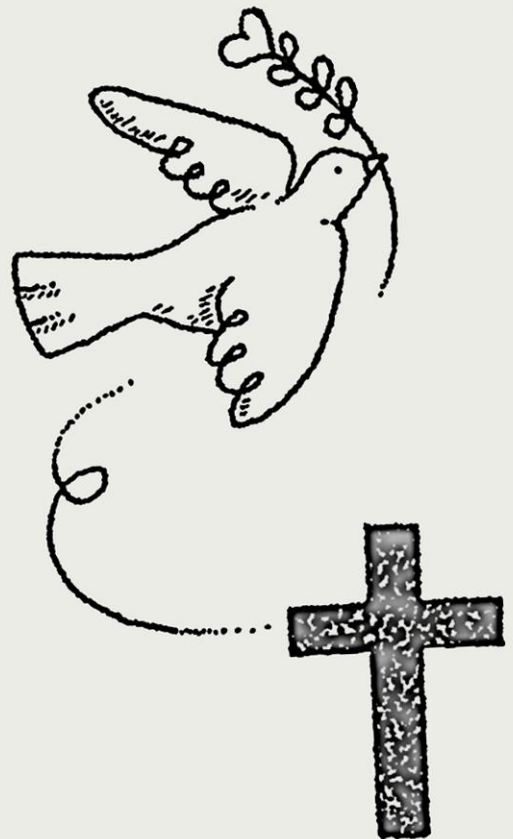
그날의 설교는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예수님과 한 젊은 엘리트 부자의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부자는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 칭하며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 함정을 팠다. 목사님은 영생이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영원히 사는 것이라 하셨다. 예수님은 부자의 부패한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의 죄를 깨닫게 하고자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다. 무언가를 가지면 우월감에 빠지거나 잃을까 봐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자는 결론으로 설교는 끝이 났다.

항상 설교를 받아적던 나는 내면 깊은 곳의 울림에 손이 멈췄다. 묵상 끝에 내 마음에 맞닿은 단어는 ‘열등감’이었다. 최근 한 친구에게 느끼던 열등감은 역설적이게도 내가 무언가를 ‘가졌기에’ 생기는 감정임을 깨달았다. 막상 가져도 끝이 아니라 또다시 남과 비교되는 잔인한 현실 속에서, 나는 남몰래 세상에 분노하고 곱씹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한없이 조용한 분노조차 들으셨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있었고, 세상에

맞서야 할 두려움을 분노로 둔갑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로써 난 내가 세상을 적으로 돌리는 순간 내 곁에 있는 건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다시 느낀다.



나의 작은 묵상조차 빠짐없이 들으시는 주님

진주은 (비전틴)

제가 평소에 묵상하는 시간은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식사 전 기도입니다.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는 수저를 손에 쥐고 짧게 기도를 올린 뒤에 밥을 먹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을 끌고 싶지 않아 손가락지를 끼거나 눈을 감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옆 친구가 보기에는 멀뚱멀뚱 식판만 쳐다보다 갑자기 밥을 먹기 시작하는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는 아무도 저를 보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가끔 식전 기도를 하는 중에 기도할 거리들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바람에 평소보다 식은 밥을 먹어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밥 먹고 남은 하루도 최선을 다해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면 남은 하루를 살아낼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 시작 전 5분은 몇 개의 불만 켜진 채로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찬양과 성경 봉독, 설교 말씀을 통해 지난 한 주간 잊고 살았던 주님을 다시 만나고 이번 주 나의 삶에 적용할 점들을 찾아나갑니다. 지난 주일(2일)에는 ‘핑계할 수 없는 주일’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내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깨달을 수 있었고, 6일간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안식일을 대하는 태도를 다져야겠다고 결

심했습니다.

셋째, 수련회 기도 시간입니다. 찬양과 강의, 공동체 활동 모두 의미 있지만, 기도회 시간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여름 수련회에서 제가 붙들었던 기도 제목은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수련회 주제처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비전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였습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에 “성인이 되고 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정말 높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고, 저에게 ‘성인이 되어서 주님을 떠나는 순간이 오더라도 다시 제가 주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는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겨났습니다.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주님에게로 나아오는 사람을 주님께서 안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고 싶다고 다짐하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샤워할 때, 잠에 들기 전, 학교 가는 버스 안 등 사소한 묵상이 생겨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저 사소한 시간들로 보일 수 있지만, 나의 작은 묵상 하나하나도 빠지지 않고 듣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아 봅니다.

나를 하나님 안에 바로 세우는 가장 큰 원동력이자 나의 힘

류재익 (싱글 이신혜 목장)

묵상을 주제로 나누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큐티한 내용을 나눠야 할지, 어떤 이야기를 전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제 삶에서 큐티를 통해 얻은 힘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의 전도로 처음 교회에 나갔고,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기쁨은 매우 컸지만, 그 기쁨을 지속하는 방법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대학교 진학 후 선교단체에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의 기틀을 잡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큐티를 배웠고, 매일 아침 모여 큐티를 하며 서로의 묵상을 나누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대학교 4년 동안 큐티를 지속하며 비로소 말씀으로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또 다른 우상을 쉽게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졸업 후 임용고시 준비를 위해 노량진에 들어갔고, 그곳에서의 삶을 살다 보니 말씀과 기도보다는 책 한 장을 더 보는 게 훨씬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시험 낙방과 여러 어려움이 겹치면서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친한 형의 집을 찾아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니다.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기독교 백화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제가 놓치고 있던 말씀과 기도가 떠오르며 다시 큐티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바로 큐티 책을 사서 그날부터 묵상을 이어갔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묵상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큐티 책에 적힌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며 실패를 두려워하고 합격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았던 제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저를 바르게 잡아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말씀을 다시 붙잡은 그 순간부터 임용고시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신뢰하며 매일을 즐겁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복 있는 사람》 큐티 책으로 사사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 깨닫게 하심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을 세우며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속에서 바로 제 모습이 비쳐 보였습니다. 임용고시에 합격해 교사가 된 후에도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이 불쑥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를 묵상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큐티는 저를 하나님 안에 바로 세우는 가장 큰 원동력이자 나의 힘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보호하는 말씀 묵상

하옥준 (싱글 문영득 목장)

'말씀 묵상'에 대해 생각하면 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회복시키셨던 시간이 떠오릅니다.

한동안 제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반복되는 건강의 문제 앞에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소망 없음이 제 자신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도, 주변의 따뜻한 위로도 제 마음을 일으켜 세우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묵상을 통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당시 신약 통독을 목표로 말씀 묵상하던 중 마태복음 27장의 예수님 십자가 죽음에 관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는데, 아주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전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곧 생명의 말씀이 제 마음에 다시 깊이,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이미 제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확실한지, 그리고 소망이 없던 제 삶에 얼마나 큰 소망이 되어 주셨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제가 처한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제가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소망 없음만을 바라보던 시

"마태복음 27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소망 없던 내 삶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었고, 불안과 두려움에 붙잡혀 있던 마음은 말씀으로 인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나아가 감사할 수 있도록 바꾸어 갔습니다.

지금도 삶에는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가오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으로 제 영혼을 붙드시며 삶을 지켜 보호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처한 상황이나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주시는 말씀은 제 영혼을 살리고 제 삶을 지키시는, 제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필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지와 관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며, 말씀을 기쁨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범한 하루가 특별한 묵상이 되는 순간

임지혜 (싱글 조은빈 목장)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묵상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태국 단기선교 중 마을을 걸을 때였습니다. 걸을 떠나지 않고 병아리들을 따라다니는 어미 닭을 보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도 늘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풍경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퇴근길, 비가 세차게 쏟아지던 날입니다. 밖은 빗물로 가득했지만 버스 정류장 안에 선 저는 비를 온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류장이 비를 막아주듯, 하나님 안에 머물 때 그분이 우리의 안전한 보호막이 되어주심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자연을 보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비행기 창밖의 아름다운 노을이나 넓은 바다, 다양한 동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쉼을 주셔서 감사해요"라며 감탄하곤 합니다. 창조물들을 통해 감사를 고백하는 이 소박한 대화가 제게는 귀한 묵상의 시간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

특별한 순간뿐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릴 때 그분은 참된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앞으로도 매일 주어진 삶 속에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사사기 14장 3절)

권춘봉 집사(송원철 소금과 빛 목장)

삼손은 딘나에서 한 블레셋 여자를 보고 반해 그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의 부모는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은 안 된다고 하지만 그는 고집을 부리며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려 합니다. 하지만 삼손이 이렇게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행하는 일조차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적용 질문

요즘 내가 안목의 정욕으로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난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저는 주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광부의 딸로 자란 저의 생애 가장 큰돈이 찍히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만, 한국 증시가 초고속 급등했다가 추락하는 것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첫째는, 세상에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절대적인 것은 없으며, 그런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둘째는, 주식의 수익금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복음(롬 1:16-17)인가 묻게 됩니다. 주식 수익금을 선교사님들께 보냈으니 그것만이라도 실천한 제 모습을 뿌듯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만유의 주님께서

내 주식 수익금이 없다고 당신의 일을 못하시는 것이 아님을 곧바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나를 돌아보니,

한 선교사님의 행사에 기부했지만, 현재 그분의 기도 요청이나 그 선교 현장으로 제 마음이 가는 것은 멈춘 상태이고, 선교지에서 뇌종양이 생겨 한국에서 수술받은 아이의 소식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할 것을 다 했다고 여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주식이 과연 나의 안목의 정욕인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돈을 소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큰 재물을 소유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마 6:24 말씀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인간에 대한 결론인 것을 인정합니다. 국내 주식은 7월에 추락했다가 8월이 되어, 모종의 이유가 사라지면서 다시 소생되는 중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보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했던 것처럼, 저도 “내가 주식창과 그 수익을 좋아하오니”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오지에서도 인터넷이 되고 휴대폰을 지닐 수 있으니, 이제는 주식을 완전히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 적용

1. 8월 한 달 동안 하루의 첫 번째 우선순위를 말씀 묵상과 기도에 두겠습니다.
2. 남에게 주식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3. 뇌수술한 선교사님 자녀의 상황과 러시아에 억류되었던 여자 선교사님의 상황을 물어보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나 자신이 쫓보처럼 느껴져서 "저 주식 해 볼 거예요!"라고 삼손처럼 행했던 저를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보게 하시고, 제가 몇 달 동안 행했던 일들을 돌이켜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식에 대한 마음을 절제하겠다고 적용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행동이 변하지 않을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연약하고 신뢰할 것 없는 나이지만, 이런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한 달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상황을 묻고 사랑하고자 하오니 인도해 주옵소서.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 보이지 않는 성장

< 묵상, 보이지 않는 성장 >

새싹씨는
요즘들어
고민이 많다

하~..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갔으면..
어서 해결됐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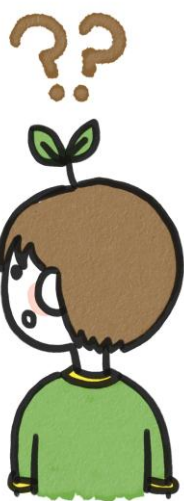
크리스찬인 새싹씨는 주일 목장모임 때
이 고민을 나누게 되었는데



한번 묵상을
해보심이
어떠신가요??

강추

묵상을 추천받아
시작하게 되었다



1일차

그래서 새싹씨는
말씀을 읽고

2일차

조용히 말씀을
곁집어 보기도하며

3일차

기도하며
묵상의 시간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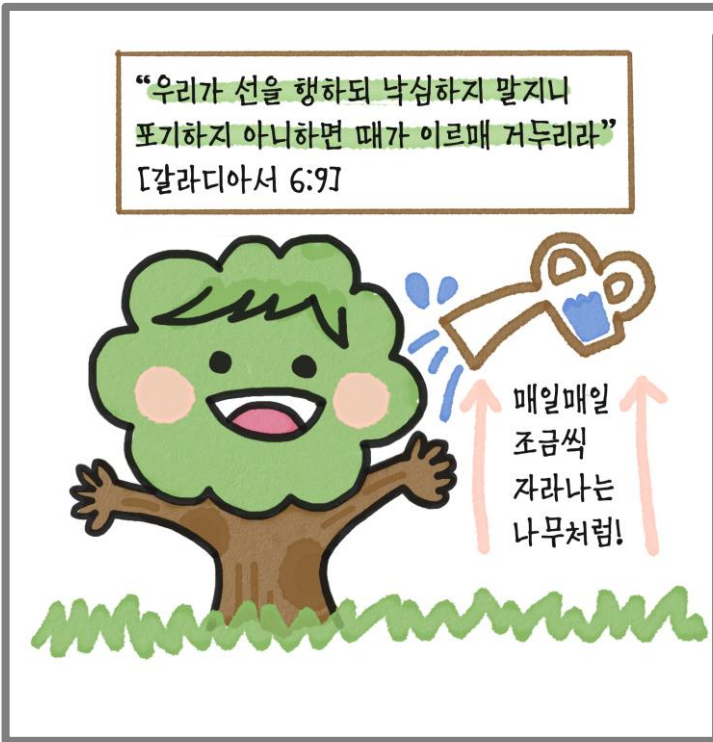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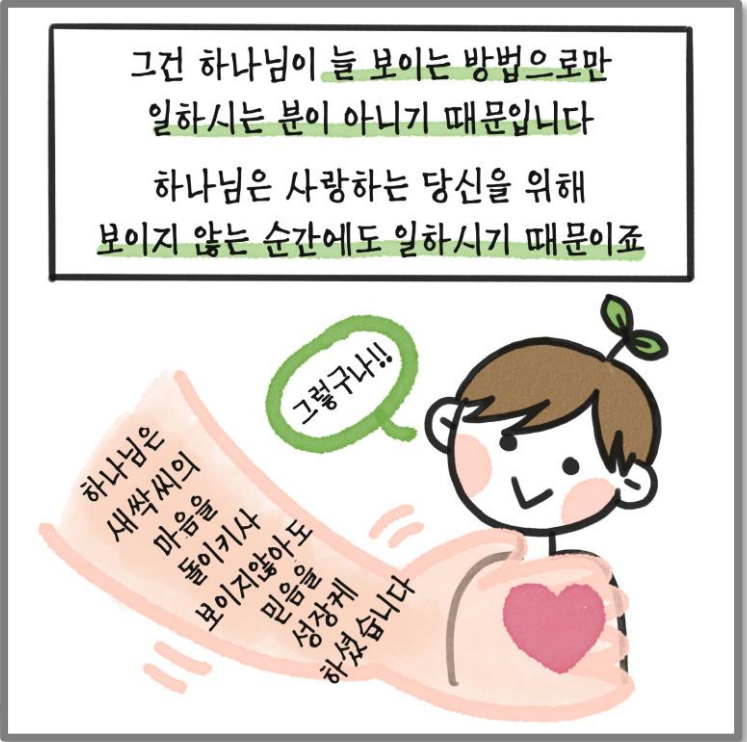
미묘

하나님, 저 답을 기다리고있어요
어서 제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이 상황을 변화시켜주세요

그러나 며칠이, 몇주가 지나도록
문제에 대한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묵상을 했는데도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글 / 그림 : 최지원 (김예찬 싱글 목장)

하나님의 사랑이 참 아름답게 모여 있는 자리

-민준기 청송 성광교회 목장-



7월 23일 1년 중 가장 답다는 ‘대서’였습니다. 아파트 주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주차장에 마중 나와 목자님 주차 자리를 뵈주시고 제 차를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던 것이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목자님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이영두 집사님과 함께 민준기 목자님 댁을 방문하자 환한 흰색 주방과 아늑한 거실 조명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여고 동창 세 분과 목자, 목녀님. 그리고 모임에서 가장 연장자였지만 밝은 에너지가 넘쳤던 부부가 모인 자리라 그런지, 처음 방문한 저에게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스스럼없고 편안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이날 상차림은 그야말로 감탄의 연속이었습니다. 한식 기능사다운 솜씨가 돋보이는 곱게 채 썬 오이와 새우, 오징어, 레몬의 조화부터 입맛을 돋우는 도토리 묵채, 메인 요리인 오리 불고기까지 정성이 넘쳐났습니다. 특히 연장자셨던 두 분이 전원주택에서 직접 땀 흘려 가꾸신 신선한 채소와 깔끔한 황매실 디저트 덕분에 대접받는 내내 마음까지 풍성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목장 탐방 민준기 목장

식사 후에는 각자 챙겨온 과일과 빵, 호두 파이, 향긋한 차를 가운데 두고 담소가 이어졌습니다. 말씀 요약은 3개월마다 순번을 정해 준비하는데 말씀 요약을 담당했던 목원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경험을 하여, 그 은혜를 기꺼이 나눠 말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목장 구성원 대부분이 60대 이상인만큼 나눔 시간에서는 자녀들에 대한 기도와 감사, 그리고 건강에 관한 주제가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제 가슴을 울렸던 건, 교회의 겉주변을 돌던 한 목원 분이 이 목장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신앙의 중심을 잡고 삶이 단단해졌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품어내고 세워가는 공동체의 진짜 힘을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목자님의 권유로 저와 이영두 집사님도 나눔의 시간을 가졌고, 깊은 위로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돌아오는 길, ‘하나님의 사랑이 참 아름답게 모여 있는 자리에 머물다 갑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기 목장 식구들 감사합니다!



시민 성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고민정 집사

구기성 구름다리교회 목장



길이 경사진 오르막길이었다. 피부관리실을 못 찾아 헤매다가 찾은 동산 오르막에서 숨을 잠깐 고르고 있는데 잠시 후에 펼쳐질 놀라운 기적들이 취재진을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예쁜 피부관리실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는 아리따운 얼굴을 만났다.



Q 안녕하세요 고민정 집사님, 숲속 동산 아래에 이렇게 예쁜 피부관리실이 숨겨져 있었네요. 들어와 보니까 시설이 너무 깨끗하네요. 피부관리실 자랑 좀 해 주시겠습니까?

A 저희 피부관리실은 단골손님들이 많아요. 한 번 오신 분들은 꾸준히 와 주신답니다. 피부 관리 뿐 아니라 바디 통증 관리, 전신 마사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Q 다양한 직업이 있지만 집사님께서 특별히 피부관리실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친정 어머니께서 피부관리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권유하셨어요. 제가 사람 만져주는 걸 좋아하는 걸 아시고, 여자라도 전문직을 가져야 한다고 하셔서 국가자격증 1기를 따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오우, 국가자격증이라는 말에 포스가 느껴집니다. 피부관리실 운영 시간을 알려주 시겠습니까?

A 네,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남편이 회사 출근하면서 저를 태워 줘서 아침 7시 반이면 가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저녁때도 남편이 퇴근하면서 데리러 오죠.



Q 제법 긴 시간을 가게에서 머물게 되네요. 남편분의 아내 사랑이 극진한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시간이 바쁘신데도 지금 하고 있는 피부 관리를 위해 공부를 하고 계신다고요?

A 매주 수요일마다 창원에 가서 근육학을 배웁니다. 벌써 2년이 되었네요. 좀 힘들긴 하지만 미래를 생각해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인체를 충분히 알고 전신 마사지하니 고객들이 먼저 알고 찾아오더군요. 그것이 힘이 돼 꾸준히 배우려고 합니다.

Q 대단하십니다. 안정된 것에 머물지 않고 발전을 위해 정진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오랜 시간을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면서, 또 주부로서 힘든 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언제가 가장 힘들었나요?

A 제 아이가 다섯 명입니다.



Q 네 아이가 5명이라고요?

A 남편과 재혼했는데 남편 아이가 네 명이고 제 아이가 한 명입니다. 남편과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심장이 아파 가지고 2년 반 동안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니 그렇게 두렵지가 않더군요. 하나님이 이제 다 먹여 주시니까 조금 가난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시지는 않잖아요. 그때 울산시민교회의 성도님들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Q 애기만 들어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군요. 남편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건가요?

A 오래전 남편의 아내가 감기인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혈액암이라고 했습니다. 백혈병요. 알게 된지 8개월 만에 돌아가시고, 시어머님과 남편이 작정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어리니까 우렁각시가 와서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 힘든 시기에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밥도 해 주고, 설거지도 해 주고, 어머님 용돈도 드리고, 아이들 생일 선물도 사 주시고, 목욕도 데려가 주시고 하면서 성도들이 아이들을 돌봐주셨대요.

그래도 아이들에게 엄마가 꼭 필요하니까 시어머님과 선교사인 시누이와 남편이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시어머님인 정명주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3월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 했답니다.

Q 어, 그러면 그 기도의 3월의 우렁각시가 고민정 집사님이셨군요. 세상에! 어떻게 아이 넷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에 시집을 생각을 하셨을까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A 저도 주변에 더 나은 여건의 선 자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저는 무엇보다 신앙이 반듯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세상적으로 돈 많고 잘난 사람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결혼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남편도 저를 보고 좋았고, 저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분이 남편이라는 확신이 들어 지금까지 어려운 순간에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Q 다섯 아이는 지금 많이 컸겠습니니다.

A 네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아이들이 참 잘 자랐습니다. 큰아들과 딸은 결혼했고, 저마다 직장생활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Q 오늘 집사님 간증 다 들으려면 밤을 새워야 할 것 같습니다. 지면에 다 담을 수가 없어 안타깝네요. 피부관리실에서 복음의 향기를 솔솔 피우신다고 들었습니다.

A 네, 제가 가게에 종일 매여 있잖아요. 대부분 손님들이 저를 찾아오시죠. 마사지는 보통 1시간 이상 걸리니 저는 손님들에게 제 살아온 얘기를 들려줍니다. 제가 친정 엄마 따라 15년 동안 일본서 생활한 거랑 이혼의 아픔과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기쁨과 남편을 만나 5명의 아이 엄마가 되어 살아온 얘기를 진솔하게 나눕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제 얘기에 눈물을 흘리고 공감하며 또 자신들의 얘기도 저에게 오픈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곤 합니다.



Q 아, 네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피부관리실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늘 퍼져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바람이 있거나 성도들이 기도해 주었으면 하는 기도제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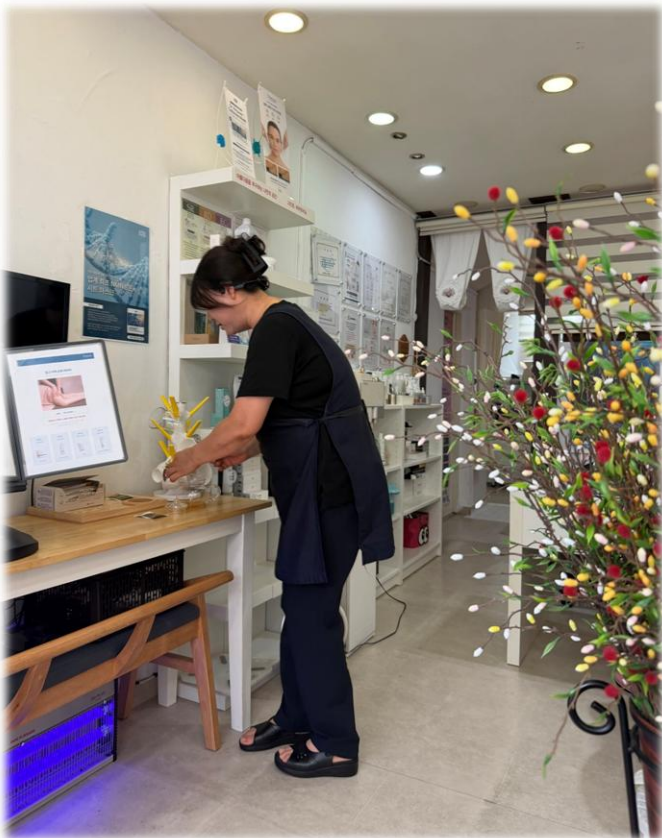
A 넷째가 중학교 때 따돌림당하다가 우울증이 와서 대인관계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평범한 20대의 청년들처럼 직장도 나가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해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가져봅니다.

Q 집사님, 귀한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민정 피부관리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늘 피어나 주위에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A 저도 감사할 뿐입니다.

인터뷰 내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에 온몸에 전율이 왔다. 오래전 김은영 집사님이 혈액암으로 돌아가시고 네 아이와 이동신 집사님만 남겨두어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가슴 아파하며 울며 기도하였었다. 우리는 그때 기도하고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돌보시기 위해 성도들을 보내 끊임없이 살피주시고, 지금껏 돌봐주셨다니…… 그 네 아이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잘 자랐다니……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사랑에, 공동체의 절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며 취재진은 엄청난 기적의 감격을 안고 또 다른 은혜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취재, 글- 윤성희, 이태순



주차 문화 UP 캠페인

“주께 하듯 하는 주차”

- Guide 1 -

기본 주차 안내

제일 중요

**창문을 꼭
내려주세요~**

- ◆ 창문을 내려야 안내 음성이 들립니다
- ◆ 라디오 & 음악은 잠시 off~
- ◆ 창문을 닫고 진입 시 주차 안내
요원이 노크를 할 수 있습니다
- ◆ 창문을 노크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화 내지 말아주세요..ㅠㅠ)

기타 에티켓

- ◆ 앞쪽에 주차한 분은 예배 후 얼른
내려와 출차를 준비해주세요
- ◆ 지하 주차장 전기차는 금지입니다
- ◆ 나가는 길이 보인다고 무작정 전진 X
안내에 따라 출차 해주세요
- ◆ 주차 요원을 차로 밀지 마세요
(실제 사례 있음)
- ◆ 장애인/새가족 석을 꼭 지켜주세요
- ◆ 오래 주차하실 분은 조금 일찍 오셔서
가장 안쪽에 주차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대하듯 이웃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주차 문화 UP 캠페인

“주께 하듯 하는 주차”

주차장 안내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예수님 덕분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임순례

조필래 인도/대만 목장



안녕하세요. 저는 일찍 결혼을 하고 시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절에 다니고 제사 지내며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한평생 살았습니다. 교회는 그냥 안 좋은 곳, 두꺼운 성경책도 부담스럽고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평생 제사와 절에 다니지만 이유 없이 매일매일 고통, 아픔, 슬픔, 괴로움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안 해본 것 없이 낮게만 해달라고 빌고 빌었습니다. 아무도 그 고통을 모릅니다. 병원에 가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곳에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정신과 육체가 혼미했습니다.

그냥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무속신앙도 의지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교회 다니자고 하면 무조건 싫었습니다. 만나기도 싫고 여행 가는 것도, 차를 함께 타는 것도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네 고통을 아신대

그러던 어느 날 또 새벽 고통이 찾아오고 잠도 못 자고 고통을 당하며 끔찍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침에 가족으로부터 전화가 오고, “밤새 고통 당한 사실을 하나님 알고 계신대”라는 한마디를 전해 듣는데 순간 멍해지며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신다고, 내가 겪는 고통을……’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한순간 마음이 확 열리면서 이제는 교회를 나가봐야겠다는 마음 문이 열렸습니다.

기적처럼 사라진 고통

그래서 교회로 한 발 한 발 나오는데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찌르는



고통이 사라지며 사람 많은 곳에 와도 몸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올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나니 정말 편안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깨끗하시고 거룩하시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는 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확실하게 몸으로 느껴집니다. 한순간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또한 저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주신 분들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모르는 것이 많지만 하나하나 교회에서 배워가는 중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하루

한평생 책을 읽지 않았는데 지금은 매일 매일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사도신경도 늘 일어나면 읽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어디 갈 때도 “하나님, 지금 어디 갑니다.”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이런저런 기도를 대화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는 날이 어찌 그리 기쁜지 마음속에서 기쁨이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최고로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영접모임, 신앙상담도 요청해서 목사님, 전도사님을 만나 쉽게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잘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늦게 하나님 알게 되었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진실한 자 되게 해주세요. 저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이 간증을 통해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시고, 깨끗하시고, 정말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진심으로 살피 준 목장 식구들

서가희 비전틴



이번 삶공부에서 청소년 목자가 저에게 가장 와닿았는데 저는 원래 교회를 주일에 잠시 다녀가는 곳 정도로 여겼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었고, 누군가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솔직히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가 훨씬 편했고, 교회에 나가는 것은 부모님 때문이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목장에서 경험한 진심 어린 관심과 위로

그러던 중 청소년 목장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또한 여러 모임 중 하나에 불과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 모임에 참석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목장 식구들은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었고, 제가 모임에 나오지 않으면 진심으로 걱정하며 연락을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관심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저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신앙에 관한 이야기만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처럼 서로를 돌보는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함께 부대끼며 체득한 살아있는 말씀

목장 안에서 이러한 정을 느끼게 되자, 삶공부 또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그저 좋은 가르침 정도로 흘려들었으나,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누며 공부하니 그 말씀이 제 삶에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며 삶으로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배웠을 때, 저 역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배우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이론으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체득한 것이었습니다.

변화된 예배와 결단

주일 예배 또한 이전과는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마치면 돌아가는 것이었으나, 목장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쌓이면서 예배 시간마다 새로운 결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저를 변화시킨 것은 특별한 설교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를 진심으로 살피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덕분에 저 또한 새로 온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모임에 나오지 않으면 연락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의 리더십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늘 가족 공동체

지금도 저는 완전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전히 게으름에 빠지고 신앙생활이 흐트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혼자였다면 결코 이 자리까지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장이라는 하늘 가족 공동체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교회를 하나의 형식적인 행사로만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신앙이 형식적으로만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목장 안에서 사람들과 진실하게 부대끼며 지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곳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 순위 나의 하나님!



황영서 비전틴

내 삶의 주인이 되려 했던 교만

이번 강의를 통해 제가 가진 죄의 개념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도덕적인 잘못이나 나쁜 행동을 안 하면 죄를 안 짓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교재를 통해 야고보서 4장 17절을 배우며 ‘선한 일(나의 장래)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장래가 나 자신에게 달렸다고 믿는 것’이 곧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와 미래가 오직 제 노력과 성적에만 달려있다고 믿으며 불안해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제 삶의 하나님 노릇을 하려 했던 무법한 모습이었습니다.

의무에서 가족이 된 공동체

또 다른 깨달음은 기독교의 본질이었습니다. 나눔 질문을 통해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유일신이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오신 종교라는 차이점을 명확히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구원하고자 하는 제 의지보다 저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제 마음의 문을 먼저 두드리고 계셨다는 요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제 일상은 온통 입시와 학업에 대한 압박감으로 채워졌습니다. 매일 모의고사 성적과 학업 스케줄에 쫓기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안에서 위험한 타협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바쁜 시기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우선이니까’라는 핑계로 예배 시간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고, 저에게 맡겨진 목자라는 자리와 책임들도 귀찮은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마음은 온통 독서실과 성적표에 가 있어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신앙도, 제 삶의 중심도 모두 무너지겠다는 위기감이 들어 신앙의 기초를 처음부터 다시 파고들기 위해 ‘생명의 삶’ 강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습니다. 더불어 교회가 그저 예배당 건물이나 행정 조직이 아니고 헬라어 어원인 ‘에클레시아’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유기적인 몸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저와 함께하는 목원들과 공동체를 대하는 시선도 의무감에서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세 가지 결단

이러한 시간과 깨달음을 통해 제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일상에서 실천하기 위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겠습니다.

첫째, 플래너 작성 시 예배와 목자 사역 시간 먼저 확보하기. 학업 계획을 짤 때 일요일 예배 시간과 목자 모임 시간을 가장 먼저 고정해 두고, 나머지 시간에 공부 스케줄을 배치하겠습니다. 시험 기간이라는 이유로 자리를 비우거나 대충 때우지 않고, 제게 선택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둘째,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 시작하기. 구원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로마서 10:9)이라고 배운 것처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예수님은 오늘 내 하루의 주인이시며, 내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라고 입 밖으로 소리 내어 선포하겠습니다. 공부가 막히고 불안감이 밀려올 때마다 이 고백을 기억하며 제 교만을 내려놓겠습니다.

셋째, 공동체 안에서 말씀의 뜻을 표현하는 지체되기. 교회 안에서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힘들어하는 목원이나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



오하은 비전틴

처음 삶공부를 신청할 때는 부모님이 권하시고 저도 하면 좋겠지 싶은 단순한 생각으로 큰 기대 없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학교와 교회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주 말씀을 배우고 교재의 질문들에 답을 적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 진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나는 왜 자꾸 죄를 지을까?”라는 질문에 “소소한 죄에 참여하는 것이 별 의식 없이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 본성이 죄인이라서 그런 것 같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새롭게 깨달은 ‘죄’의 의미

이번 삶공부에서 배운 ‘죄의 세 가지 정의’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동안은 죄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큰 잘못만 생각했는데,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나로 두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려는 태도 자체가 모두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준이 되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선한 일인 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무척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구원의 선물

그동안 ‘이만하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고, 제 힘과 의지만으로는 결코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런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베푸신 구원은 제가 무언가를 잘해서 얻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의지한 용서와 순종

이제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이 소중한 구원의 선물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는 아직 솔직하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제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삶공부로 이끄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달라진 믿음

송하준 비전틴



삶공부를 하기 전후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삶공부를 들으며 받은 은혜들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저의 믿음이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부분들이 삶공부 전보다 굳건해진 것 같아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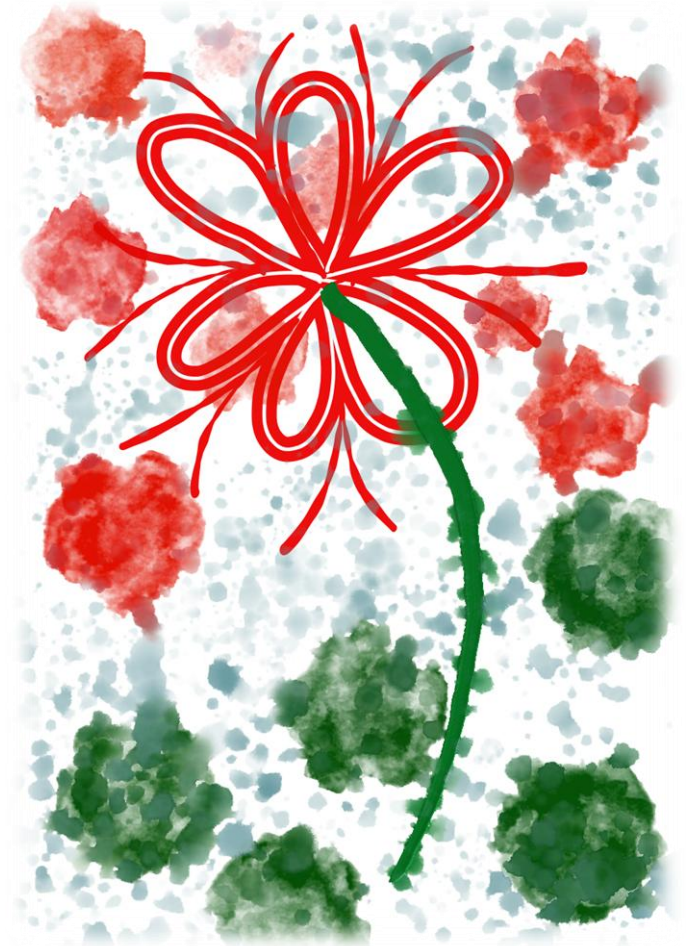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삶공부를 하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내용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더 간절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이번 삶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세 가지 다짐

삶공부를 통해 결심하게 된 앞으로의 삶에 대한 다짐을 나누고자 합니다.

- 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 ②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계속 붙잡으며 기도하겠습니다.
- ③ 나의 삶이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넘어 이웃으로 이끌어준 '경건의 삶'

손다영 싱글 목자



저는 작년 봄학기에 새로운 삶을 수료한 이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험을 마무리하고 여유가 생기면서 하나님과 더욱 교제하고 싶어 이번에 경건의 삶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과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만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쁨도 클 것 같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삶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낙방의 좌절

기쁜 마음으로 삶공부를 시작했지만, 3주 차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습

니다. 당연히 합격할 것이라 기대했던 공무원 시험에서 최종 탈락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힘든 마음으로 4월부터 다시 수험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과연 내가 삶공부를 끝까지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함께 '삶공부를 포기해야 되나'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를 붙들어 준 것은 기도짝 집사님의 진심 어린 위로와 중보기도였습니다. 시험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분주한 삶 속에서도 말씀을 더 가까이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는 갈망이 생겼고, 그렇게 저는 완주를 목표로 삼으며 삶공부를 열심히 듣기로 다짐했습니다.



불안을 평안으로 바꾼 말씀 묵상과 감사

이번 경건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기대 이상으로 컸습니다. 먼저는 매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편 63편 6~7절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침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뻐했던 것처럼, 공부를 마치고 누웠을 때 찾아왔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께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저 생각을 멈추고

빨리 잠들려고만 애썼다면, 이제는 다윗처럼 지금까지 제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누린 사랑

또,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공부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되어 이웃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남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과제와 기도짝 집사님과의 기도제목 나눔, 그리고 수강생분들의 진솔한 나눔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삶공부를 같이 수강했던 분들께 많은 사랑과 기도를 받으면서, 힘든 취업 준비 기간을 지나면서도 든든한 동역자들과 함께 행복한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며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삶공부 과제를 하며 묵상했던 야고보서 말씀이 떠오릅니다. 비록 삶공부 수업은 끝이 났지만 저는 앞에서 기쁨으로 누렸던 두 가지를 삶에서 계속 실천하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

는 것’과 ‘주변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주한 일상을 보내면서도 경건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을 알게 하시고, 수료까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을 선택했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

전천영 집사

신규채 튀니지 목장



지금까지 수강한 삶공부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체험의 장이었으며, 유혹을 이겨내며 믿음의 삶을 선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도전 정신으로 시작한 봄학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수강은 또 다른 감동을 선물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매 학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주일반이 개설되었기에 2026년 봄학기에도 당연히 주일반이 개설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추운 겨울부터 삶공부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주일반이 개설되지 않는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수강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망설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내에는 물론 해외 출장이 있고, 평일에도 고객사는 물론 회사 내의 일정으로 인해 저녁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직장인으로서 목요일 저녁에 삶공부를 수강하고 수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일단 수강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함께 수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적처럼 정리된 일정

개강하는 날 자기소개 시간에도 저를 소개하며 평일 삶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저에게 큰 도전이며, 수료를 장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일임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삶공부를 수강하는 동안 목요일 일정들이 정리가 되고 때로는 취소가 되면서 한 주, 한 주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수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삶공부 수강과 현실의 삶 사이에서 선택의 순간은 늘 있었습니다. 삶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주변 동료들에게는 목요일 저녁은 일정이 안 된다고 미리 알리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연락 오는 지인들에게는 일일이 설명하고 일정을 변경하며 삶공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타협 대신 지켜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푹 빠져서 기쁨으로 매일 책을 읽고 묵상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쌓아가고 있던 4월 어느 목요일에 고객센터 구매팀에서 본부장이 포함된 세 분의 중역들이 제가 근무하는 회사를 방문하게 되었고, 일정에 없던 저녁 식사 자리까지 참석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하고,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하기 힘들지만,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목요일마다 진행되는 삶공부에 참석해야 함을 설명하고 식사만 마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삶공부 수업을 마치고 고객센터와 모임 자리에 참석했던 임원에게 연락하니 예정에 없던 석식 자리여서 고객분들이 저의 개인 일정에 대해 큰 문제 없이 받아들였다는 전언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고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

이번 삶공부에서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지속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은 매시간 저의 삶을 성찰하게 하였으며, 깊은 묵상과 기도의 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생명의 삶부터 경건의 삶까지 삶공부의 수강 또한 감격과 감사의 시간들이었지만 출장과 장례로 주일반임에도 출석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목요일 저녁 시간에 개설된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전출을 하게 된 첫 번째 삶공부가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하였을 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삶에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제 생각과 행동을 잘 조정해서 갈등의 상황 속에서 반복되는 좌절의 경험을 줄일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겠습니다.

영적 전쟁터 같은 우리 집, 나를 먼저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성현 집사

송태성 장애인전도협회 목장



시민블레싱 1,200회 수상

안녕하세요. 7세, 초등 5학년, 6학년 삼남매를 키우며 가정 안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송태성 목장의 이성현입니다. 아이가 셋이다 보니 남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겨 어느덧 ‘시민블레싱 1,200회’라는 뜻깊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치열했던 그 1,200회의 여정과 과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상을 받고 싶어 내 힘이 들어갔던 첫 600회

처음 시민블레싱 스티커 판을 채우며 ‘완성하면 상을 준다’는 말에 아이들과 의욕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연년생 두 아이가 아직 어렸을 때라 엄마 말도 잘 들어주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 매일 예배를 하는 것은 무리였고, 주 3일 정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엔 집에서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어색했습니다. 함께 둘러앉아 순서를 정해 성경을 읽는 일도 쉽지 않았지만, 불평 없이 잘 앉아준 아이들이 고마웠습니다. 솔직히 돌이켜보면, 그때는 아이들과 함께 상을 타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의 ‘숙제’처럼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7살 막내의 권유,

다시 시작된 600회와 예배의 회복

그렇게 숙제 같던 첫 600회가 끝난 후, 저에게는 평온한 저녁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퇴근 후 아이들 저녁을 챙겨 먹이고, 예배 없이 빠르게 하루를 마무리한 뒤 일찍 자리에 누울 수 있었습니다. ‘자기 전에 민수기 6장 24절로 축복 기도해 주는 것도 예배지 뭐’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7살 막내 딸아이가 제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킹즈키즈에 쌍둥이 동생들은 시민블레싱 상 많이 받는데. 우리도 또 상 받고 싶어!”

지친 일상 속에서 육체와 마음이 이미 고갈되어 있던 저는 안 하는 방향으로 아이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목장 모임과 주일 목장연합 예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한창 스마트폰 삼매경인 사춘기 연년생 아이들과 매일 마찰을 빚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막내에게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은 포기하지 않고 시민블레싱 상 받고 싶다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결국 어린 딸 아이의 권유로 다시 두 번째 600회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고, 마침내 1,200회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00회를 드리는 동안, 제 마음속엔 ‘상’이 아닌 ‘진정한 우리 가정의 예배 회복’을 향한 갈망이 생겨났습니다.

스마트폰 삼매경 연년생 남매와의 영적 전쟁

사춘기에 접어드는 아이들과 매일 예배 자리에 앉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이용 시간으로 딜(Deal)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심하게 화를 내며 억지로 앉혀놓은 날도 있었습니다.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달래가며 예배한 날도 많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싶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살이 속에 기쁜 날도 있겠지만 슬하게 찾아올 힘든 날마다, 우리 아이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어미의 마음으로 달래고 싸워가며 매일의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저녁 8시, 멈추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

일하는 엄마로서 매일 가정예배를 사수하는 것은 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스마트폰을 먼저 바라보는 아이들과의 예배는 매 순간이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저는 퇴근 후 아이들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보며 이야기 나눈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연년생 아이들의 속마음이 어떤지 들여다볼 여력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저녁 8시가 되면 아이들에게 예배하자고 미리 선포합니다. 연년생 남매는 바로 스마트폰을 끄지 않고 “엄마 조금만 더요, 이것만요” 하며 시간을 끌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줍니다. 겨울 바람처럼 뽀루통하고 하기 싫은 표정으로 겨우 앉은 아이들이지만, 예배가 끝날 즈음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함께 웃곤 합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 듣기도 하고, 제가 삶에서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가정예배는 여전히 매일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터이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을 연결해 주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아이들이 바로 미전도 종족입니다”

하루하루 예배드리며 겪었던 치열한 영적 전쟁의 순간들을 목장 모임에서 나누곤 했습니다. 나를 찌르는 아이들의 말과 행동에 저 역시 감정적으로 반응해 아이

들을 찌르기도 했고, 목사님께 “이렇게까지 예배를 해야 하나요?” 하고 투정을 부린 적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에게 따뜻한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성현 자매님, 선교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바로 자매님의 미전도 종족이자 선교지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예배를 지켜내는 일이 힘든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를 지킬 힘을 주었습니다.

예배 속에서 나를 먼저 세우시는 하나님

아이들과 드리는 가정예배는 여전히 쉽지 않고, 깊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1,200회의 시간을 통과하며 깨달은 가장 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이들보다 ‘나’를 먼저 세우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늘 머리로만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생각하면서도 내 몸과 마음은 늘 세상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를 먼저 믿음의 사람

으로 세우시고, 제 입술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는 삶의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먼저 구하게 됩니다. 무조건 “주세요, 주세요”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노력합니다. 저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무너지면 무너진 채로 낙심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명백한 영적 전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정예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가장 먼저 변하고 바로 서게 되는 것은, 아이들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영적 전쟁터 같은 삶의 현장에서 나를 먼저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다윗》



감독 필 커닝햄 · 브렌트 도스 | 애니메이션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선 작은 소년.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칼도, 갑옷도 아닌 작은 돌 하나였다.

애니메이션 영화 <다윗>은 우리에게 익숙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넘어, 한 소년이 두려움과 운명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선택해 가는 여정을 그린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의 모습뿐 아니라,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광야를 지나며 흔들리고 성장하는 다윗의 모습까지 담아냈다. 특히 아름다운 영상과 음악, 그리고 박보검 · 차지연 · 장광 등이 참여한 한국어 더빙은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이야기의 감동을 깊게 전한다.

·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

· 작은 내가 거대한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윗>은 오래전 한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의 골리앗 앞에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물어 온다.



감사의 이유, 하나님의 헤세드

윤현락 목사



1. 들어가는 말: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사의 가장 깊은 이유를 환경이나 형통에서 찾지 않습니다. 시편 118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에서 찾습니다. 다시 말해,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에서 시작됩니다.

2.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구약에서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단순한 친절이나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헤세드는 감정적인 사랑이라기보다 언약에 근거한 신실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헤세드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둘째,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인간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셋째, **공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붙잡히 여기시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3. 출애굽기 34:6, 구약 신학의 중심 고백

헤세드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본문은 출애굽기 34:6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헤세드)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과 성품을 직접 선포하신 장면입니다. 많은 구약학자는 이 구절을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자기 계시라고 평가합니다. 이후 시편, 예레미야, 요엘, 요나, 느헤미야 등 여러 성경 저자들은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인용하거나 반

영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합니다. 결국 시편 118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고백도 출애굽기 34장의 계시 위에 서 있습니다.

4.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헤세드

구약에서 반복되던 하나님의 헤세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절정에 이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한 긍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합니다(엡 2:4-5). 여기서 ‘**긍휼**’은 칠십인역(LXX)에서 헤세드를 번역할 때 자주 사용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신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긍휼은 구약의 헤세드 신학을 이어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5.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시편 118편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세 가지 신앙의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 **상황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고난과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믿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둘째, **감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만 드리는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헤세드를 받은 사람은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용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며,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6. 나가는 말: 감사의 가장 깊은 이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의 헤세드, 곧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구약의 이스라엘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흔들리는 환경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18편의 고백이 성도님들의 간증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 26.02.11 수요기도회 설교 中 -

가을, 다시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조윤경 집사(김도완 목장)

저는 2부 호산나 찬양대에서 트레이너로 섬기고 있습니다.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분주했던 마음도 조금은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을 어떻게 다시 노래하게 하셨는지를 돌아보곤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이사야 43:21)

저는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무대에서 노래하는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대학원에도 합격했지만 부모님께서 더 큰 짐을 드리고 싶지 않았기에 조용히 꿈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음악도 제 삶에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찬양만은 놓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다 눈물이 흐를 때도, 성악가의 노래를 듣다 가슴이 벅차오를 때도 제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찬양이 살아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 한 집사님의 권유로 호산나 찬양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노래하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릴까 봐 립싱크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숨어 있던 제가 어느덧 10년이 넘는 시간을 찬양대와 함께 걸어오고 있습니다.

찬양은 참 신비합니다. 삶이 흔들릴 때는 가장 깊은 곳까지 찾아와 저를 붙들어주고, 감사가 넘칠 때는 마음보다 먼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 삶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몇 해 전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준비하던 중, 지휘자님께서 불쑥 말씀하셨습니다.

“트레이너 한번 해 보세요.”

믿어주시며 건네주신 그 한마디가 제게는 사람의 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처럼 들렸습니다. 두려웠지만 순종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십 명의 대원들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파트 연습을 마치면 땀이 흠뻑 젖을 만큼 긴 장했습니다. 솔로와 데스칸트(Descant)를 맡았다가 떨림 때문에 무너졌던 기억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데 괜찮다"라고 위로했지만, 저는 제 부족함으로 누군가의 예배가 흐트러질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찬양이 되게 해 주세요."

개인 연습할 공간이 없어 여름밤 차 안에서 서너 시간 동안 발성을 하고, 파트 연습을 준비하고 다음 주 곡을 연습 할 때도 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흐르지만 그 시간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허락하신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은 가족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주일마다 아이들을 기꺼이 돌봐 준 남편과 엄마를 응원해 준 아이들, 찬양대에서는 남편이 '호산나 찬양대의 숨은 대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다 하나님께서 제게 얼마나 큰 선물을 주셨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저는 오페라 무대보다 예배의 자리를 더 사랑합니다. 화려한 조명보다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한 곡의 찬양이 요즘은 같은 마음을 품은 세 지체와 함께 특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했지만 오랫동안 아이들을 키우느라 음악을 놓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자 다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로 모였습니다.

여전히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더 좋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열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꿈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 가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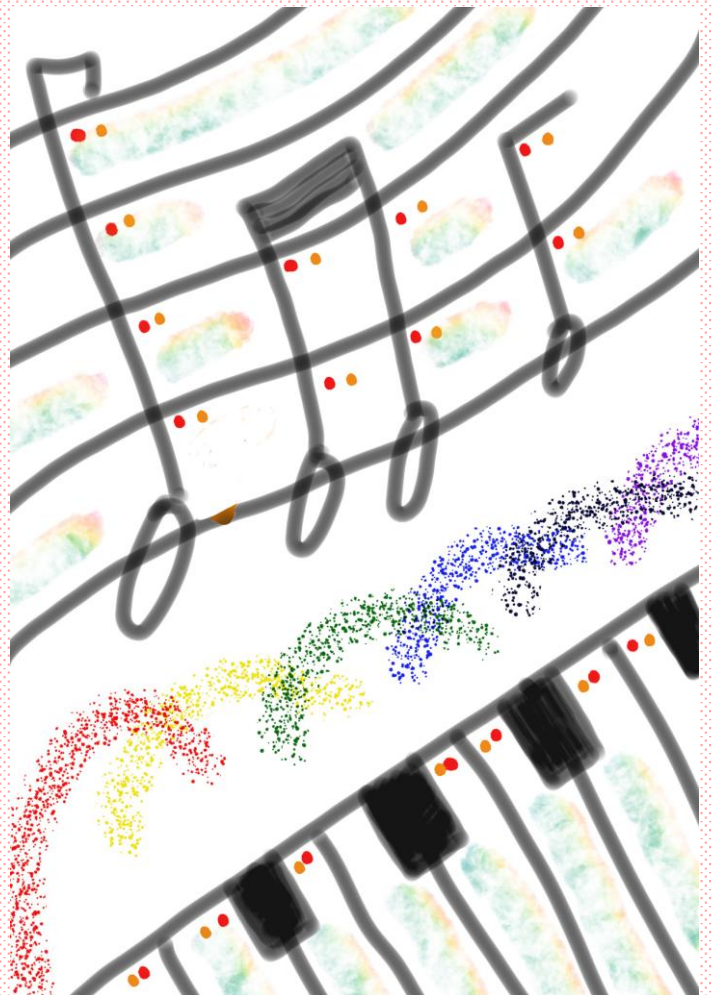
다가오는 가을, 하나님께서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조용히 고백합니다.

"주님, 제 목소리만이 아니라 제 삶 전체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소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시편 96:1)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며,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고 싶은 믿음의 길입니다.



▼ 사람의 아들 2603 (Son of Man) 75 x 100cm oil on canvas 2026 2603



사람의 아들

김섭 집사

나의 작업은 테마의 구성, 그리고 그것을 조형화시키는 방법론과의 상관관계에 발상의 중요한 초점이 놓여 있다. 초기엔 소박한 일상들을 동화적 정서로 이야기해 나갔고 그것이 지금은 폭이 넓어져 우선 지극히 예민한 문학적 혹은 종교적 관심과 감성을 언어적 구성 기법을 통해 화면에 쏟아 붓는다.



▲ 그리움 20730 (Longing 20730) 70 x 50cm mixed media on Canvas 2020

나의 그림들은 화면 곳곳에서 인간의 조건들에 직면하여 소박한 방담을 하고 있지만, 다른 편에서는 보다 은밀한 해학과 풍자가 포착된다. 그렇다고 화면에서 그 맥락을 바로 잡아내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어차피 난 그림이 계몽적이거나 인식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림에서의 이야기가 상당히 은유적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화면엔 일정한 패턴들이 등장하는데, 척추로부터 이어지는 하트모양, DNA구조 같은 기호, 해와 달, 날아다니는 가오리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화면 디테일에서 보면 등장하는 대상들의 이미지가 전하는 것은 주로 애정, 편견, 유혹, 교만 등의 감정이 섞인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세태의 풍자적 묘사인 것이다.



▲ 요나의 집 II (Jonas House II) 100 x 70cm Mixed media on Paper 2012

나의 그림에는 이중적인 콘텍스트가 흐르고 있다. 일상적인 이야기거리를 통한 재미를 띠는 일면이 있지만, 좌절이나 비극적인 실존주의적 분위기가 감돌고도 있다. 작품 배경을 등지고 있는 형상들이 대체로 인간에 대한 관찰을 멀리서 하고 있다면, 배경은 오히려 나의 보다 깊은 내면을 열어 보이는 심상의 반영이자 표현인 것이다.

즉, 실존주의적 배경에 풍자적 형상의 대비가 내 그림에 있어서의 재미가 단순한 재미는 아니라는 점인 것이다. 화면에서의 낙서를 연상시키는 것 같은 모습도 흥미할 만한 대목이다. 형태들이 명료하고 견고한 것이라기 보다는 선묘 고유의 가상성을 노골화 시키고 있어 가벼워 보이기도 한다. 그 선드로잉이 가지는 속도감과 자연스런 생동감이 더 두드러져 보이게 하고 싶다. 칼라스틱이나 갈필의 붓질에 의한 마티에르가 거친 터치와 선묘로 몇 층의 배경을 뚫고 나오므로써 유기적 활력을 펼치고 있다.



-울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나무에서 나무까지 2403
(Tree to Tree 2403)

150 x 150cm
mixed media on canvas 2024

인공지능이 일상이 된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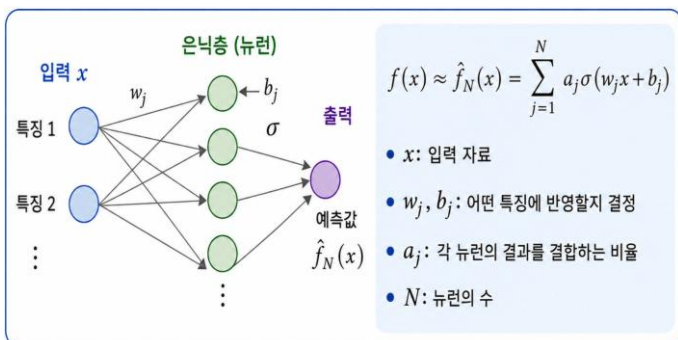
장봉수 집사

김후곤 캄보디아 목장



최근 인공지능은 질문에 답하고, 문서를 요약하며, 번역·그림 제작·자료 분석까지 돕는 일상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과학 연구에서도 분석 방법을 찾고 프로그램 오류를 수정하는 데 활용되어 연구 시간을 줄이고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게 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자연스럽게 자신 있게 제시한 답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답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인공지능을 움직이는 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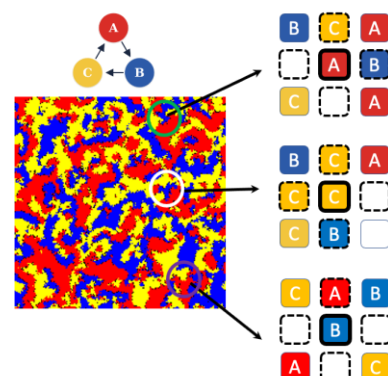
인공신경망은 여러 개의 단순한 함수를 결합하여 복잡한 관계를 표현합니다. 인공지능이 복잡한 함수를 표현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수학적 이론이 **보편근사정리**입니다. 이 정리는 뉴런의 수 N 이 충분히 크면 인공신경망이 복잡한 연속함수 $f(x)$ 를 매우 가깝게 표현할 수 있음을 증

명합니다. 신경망을 실제로 사용하려면 a_j, ω_j, b_j 의 적절한 값을 데이터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입력값과 정답으로 이루어진 자료 (x_j, y_j) 가 M 개 주어졌다고 한다면 입력값 x_j 에 대응하는 예측값 $\hat{f}_N(x_j)$ 이 정답 (y_j) 에 가까워야 하며, 이는 손실함수(L)가 최소가 되게 하여 신경망의 미지수 (a_j, ω_j, b_j) 를 찾습니다.

$$\mathcal{L} = \frac{1}{M} \sum_{i=1}^M [\hat{f}_N(x_i) - y_i]$$

제공형식의 손실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것이 **경사하강법**입니다. 산 위에서 가장 낮은 골짜기를 찾아갈 때 현재 위치의 경사 방향을 확인하고 아래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점차 낮은 곳에 도달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가위바위보 생태계와 인공지능



가위바위보 게임

저는 응용수학자로서 생태계에서 나타나는 경쟁과 공존 현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에는 한 종이 다른 종보다 우세하지만, 그 종은 다시 제3의 종에게 열세를 보이는 순환적 경쟁 관계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러한 경쟁 구조를 **가위바위보 게임**으로 모델링하여 생태계의 공존과 멸종 현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대규모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대신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생태계가 공존을 유지할지, 아니면 일부 종이 멸종할지를 예측하는 연구입니다.

생태계의 공존과 멸종은 개체들 사이의 경쟁을 통해 결정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임의의 한 개체 주변에 다른 종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데이터로 만들고, 인공지능이 이러한 분포의 특징을 학습하도록 합니다. 이후 인공지능은 전체 생태계의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여 앞으로 공존이 유지될지, 멸종이 일어날지를 예측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수많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인공시대의 필요한 분별력

연구자에게 인공지능은 매우 유익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유용성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지식과 판단 능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생태계

의 수학적 모델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관한 연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제시한 설명과 결과가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미 수많은 가치와 주장이 존재합니다. 인공지능은 이러한 정보와 주장을 이전보다 더 빠르고 설득력 있는 형태로 전달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많은 정보를 아는 능력뿐 아니라, 무엇이 옳고 선한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과학자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결과를 검토하듯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초한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무엇이 선하고 옳은지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선택하도록 권면합니다**(로마서 12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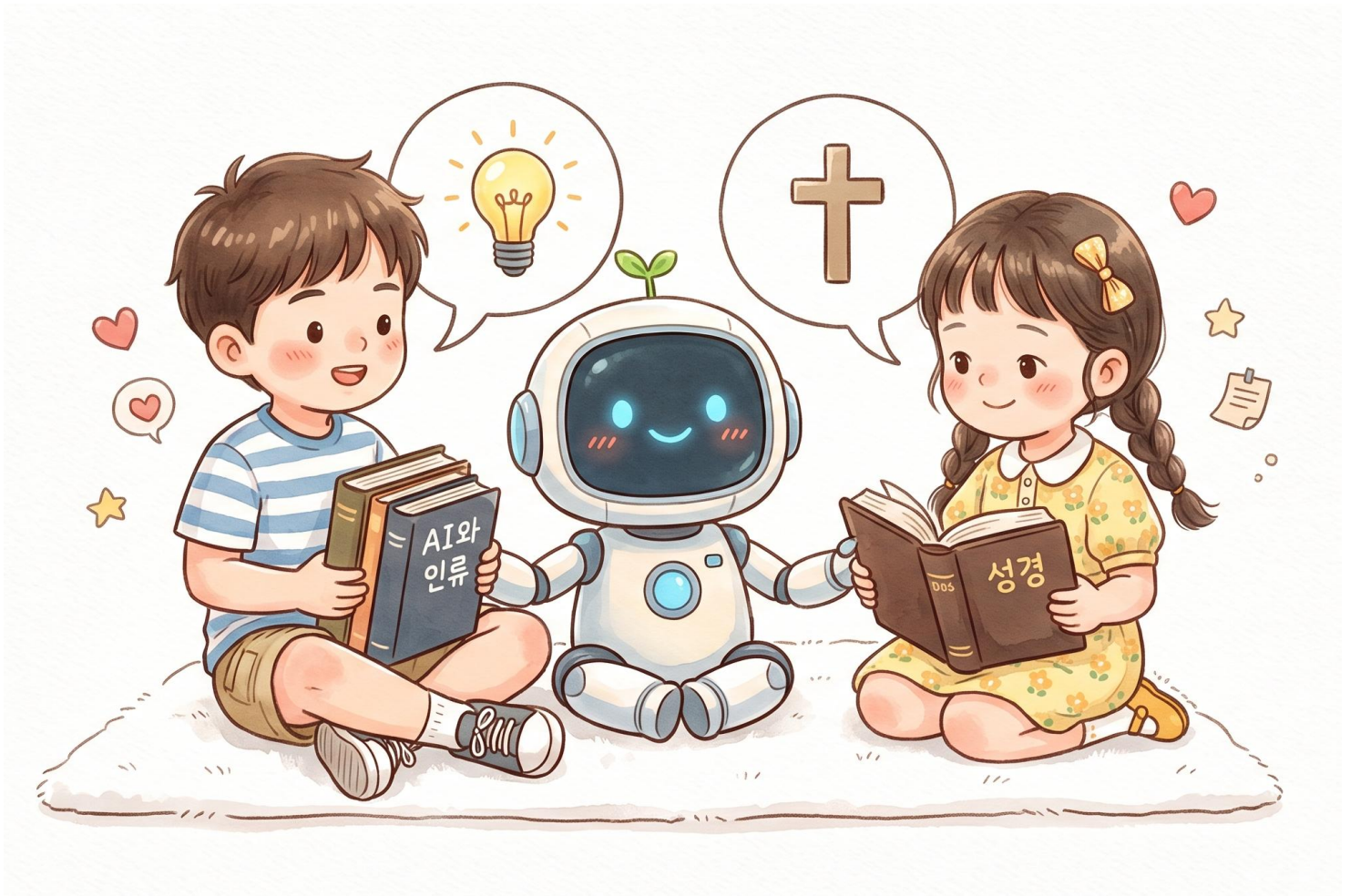
말씀에 대한 지식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많이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을 일상의 선택 속에서 실천하며,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그럴듯한 답과 세상의 가치에 쉽게 이끌릴 수 있습니다.

인공시대의 신앙공동체

인공지능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신앙 공동체의 역할도 더욱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그럴듯한 정보와 세상의 가치에 쉽게 흔들릴 수 있지만, 목장 식구들과 질문을 나누고 서로의 신앙을 살피며 격려할 때 더욱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목장 모임은 정답을 대신 알려 주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함께 고민하고 서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도록 돕는 신앙의 훈련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공동체 안에서 더 신중하게 질문하며, 자신의 선택에 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답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 답을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일은 여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바르게 내릴 수 있도록 서로를 점검하고 격려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UNIST 자연과학부 수리과학과-



당신은 혼모노입니까?

이현화 목녀

전병국 일본 목장



여름 성경학교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이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싱그러운 청년 스태프 한 명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클라우드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데, 오늘 찍은 사진을 에어드롭으로 보내드려도 될까요?”

호기롭게 “그러세요.”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그 순간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 뿐이었다. 에어드롭…… 어떻게 하는 거였지?

자주 사용하지 않던 기능이라 아이콘 하나 찾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허둥지둥하는 내 모습을 본 청년이 웃으며 대신 연결을 해 주었다. 혹시라도 전송이 끊길까 봐 나는 휴대폰을 그의 휴대폰에 거의 붙이 다시피 하고 있었다. 속으로는 ‘이게 아닌데…….’ 싶으면서도 차마 떼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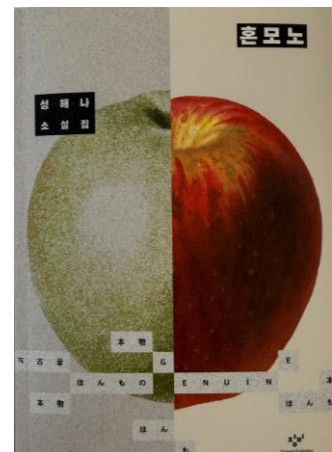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청년은 멋쩍게 웃었고, 나는 당황스러움을 들키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젊은 친구들보다 훨씬 최신 사양의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나, 순간 조금 창피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머릿속을 지배한 생각이 있었다.

‘아, 이제 나도 나이가 들고 있구나.’

혼모노

그 작은 사건은 단순히 휴대폰 기능 하나를 몰랐다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어느새 세상이 익숙한 속도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한 순간이었다. 바로 그즈음, 이상하게도 읽고 싶었던 책이 있었다.

책의 제목인 ‘혼모노(本物)’는 원래 일본어로 ‘진짜’라는 뜻이다. 하지만 지금의 젠지 세대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로 소비된다. 무언가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사람, 혹은 범상치 않을 정도로 한 분야에 깊게 빠진 사람을 놀리거나 비꼴 때 사용하는 인터넷 유행어가 되었다. 제목부터가 이미 세대의 언어였다.



이 책은 서로 다른 일곱 개의 이야기를 통해 세대와 세대가 마주하는 순간들을 담아낸다.

처음에는 ‘세대 갈등’을 말하는 소설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책장을 넘길수록 내 예상은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했다. 흥미로웠던 점은 작가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가 옳다고도, 기성세대가 틀렸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난 하드보일드적인 관찰자의 자리에서 인물들을 바라본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들을 보여줄 뿐, 누가 잘못했는지 쉽게 결론 내리지 않는다.

서로를 돌아봄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야말로 현실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다. 우리는 흔히 세대 갈등이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 같은 길을 걷는다. 버릇없다고 손가락질 받던 젊은이는 어느새 예의를 말하는 어른이 되고, 답답한 기성세대라며 고개를 저었던 사람 역시 누군가에게는 곧바로 불리는 나이가 된다. 우리 부모님도 한때는 젊은이였고, 지금의 젠지 세대 역시 언젠가는 지금의 우리처럼 살아갈 것이다.

결국 세대는 서로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하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책을 덮으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세대’가 아니라 ‘애씀’이었다.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 끝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상대를 향한 걸음 다가가 보려는 태도. 그것이 이 소설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 시절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나

특히 마지막 단편인 「메탈」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읽는 내내 오래전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나 역시 반항심으로 가득했던 젊은 시절이 있었다. 습기 냄새가 가득한 지하 연습실을 오가며 밴드 활동을 했고, 귀동냥으로 메탈 음악을 배워갔다. 처음에는 대중적인 메탈리카와 아이언 메이든을 들었고,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면서 가룟 유다를 연상시키는 주다스 프리스트, 데스메탈의 선두주자 카니발 콥스 같은 밴드의 음악까지 찾아 들었다.

여름 록 페스티벌을 쫓아다니고, 홍대 클럽 공연장을 전전하며 처음 만난 사람들과도 메탈이라는 공통분모 하나만으로 밤새 슬램을 하고 헤드뱅잉을 했다. 차는 끌고, 주머니에는 집까지 갈 차비조차 없어 몇 시간을 걸어 귀가했던 적도 있었다.

가난했지만 뜨거웠다. 불편했지만 자유로웠다.

그 시절의 나는 미래보다 오늘이 중요했고, 내일보다 지금이 소중했다. 그런데 어느새 나는 그 시절을 추억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여유롭다. 좋은 휴대폰도 있고, 좋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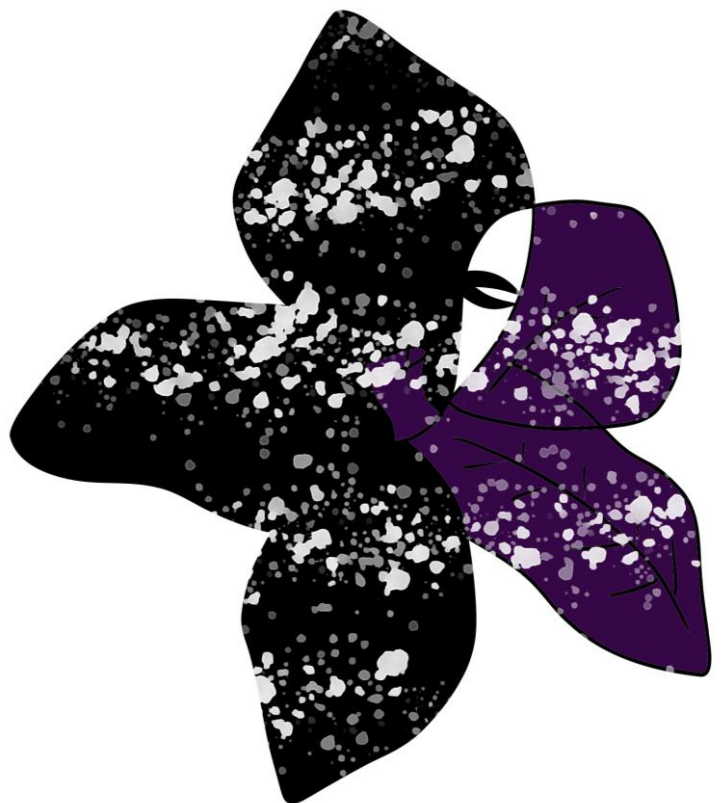
웃도 있고, 좋은 차도 있다. 하지만 그 시절의 열정과 패기는 어디쯤 두고 온 것일까.

문득 웃음이 났다. 헤드뱅잉을 하던 내가 이제는 교회 준비 찬양팀에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보컬이 되어 있다니. 어쩌면 인생이란 이렇게 조금씩 방향을 바꾸며 흘러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혼모노』를 읽으며 나는 젊은 세대를 이해하게 되었다기보다, 오히려 지금의 나를 이해하게 되었다.

세대를 넘어

에어드롭 하나를 몰라 당황했던 순간도, 메탈 음악에 모든 것을 걸었던 청춘도, 지금 교회에서 찬양하는 현재의 모습도 결국은 하나의 삶으로 이어져 있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세대는 계속 바뀐다. 우리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새로운 세대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따라잡는 능력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태도일지도 모른다.

『혼모노』는 세대를 심판하는 소설이 아니다. 서로를 향해 애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한번쯤 손을 내밀어 보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세대를 넘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가장 ‘혼모노’다운 모습이 아닐까.



내 신장은 괜찮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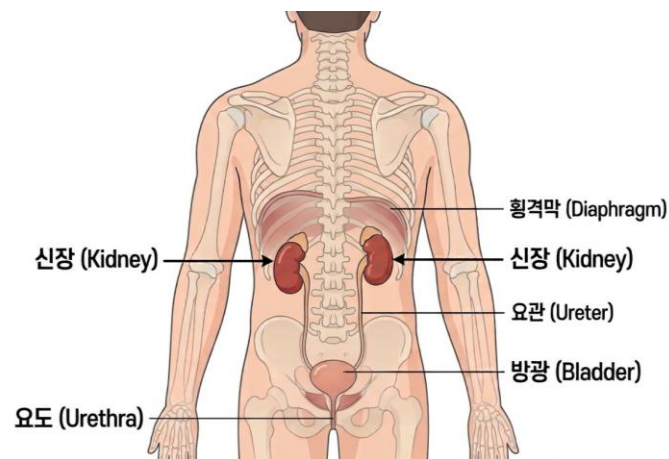
신장이 보내는 침묵의 신호

노민지 목녀
김영광 목장



우리 몸의 신장은 등쪽 허리 부근에 자리한, 주먹만 한 크기의 장기입니다. 흔히 신장은 소변을 만드는 장기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몸속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며, 혈압과 빈혈을 조절하는 등 매우 다양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신장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능이 나빠지더라도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장을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도 부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이 건강검진에서 혈액검사나 소변검사 이상을 우연히 발견한 뒤에야 신장 기능이 저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있다면 신장 건강을 확인해 보세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다리나 발목이 붓거나, 눈 주위가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단백뇨의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소변량이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로감, 식욕 저하, 메스꺼움과 같은 증상은 신장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뒤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아픈 곳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더 주의해야 할까요?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은 신장 질환의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혈압과 혈당이 오랜 기간 잘 조절되지 않으면 신장의 작은 혈관이 서서히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이 있거나, 가족 중 신장 질환자가 있는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도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염진통제를 자주 복용하거나 여러 종류의 건강보조식품과 한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더운 날씨, 설사, 구토 등으로 탈수가 된 상태에서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면 신장 기능이 갑자기 나빠질 수 있습니다.

신장 검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신장 건강을 확인하는 기본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혈액검사로 크레아티닌과 사구체여과율을 확인하고, 소변검사로 단백뇨와 혈뇨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혈압 측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크레아티닌’, ‘사구체여과율’, ‘단백뇨’라는 항목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견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신장을 지키는 방법

평소 혈압과 혈당을 잘 관리하고, 지나치게 짠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소염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지 않고, 건강보조식품이나 한약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복용하기보다는 성분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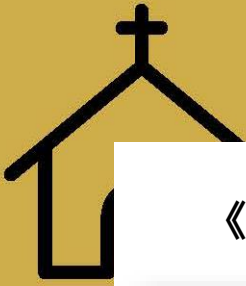
물은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은 갈증과 활동량에 맞추어 적절히 마시면 되지만, 심부전이나 진행된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오히려 과도한 수분 섭취가 부종과 호흡곤

란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한 번 많이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기에 발견하여 원인을 관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내 몸의 작은 변화를 살피는 것이 신장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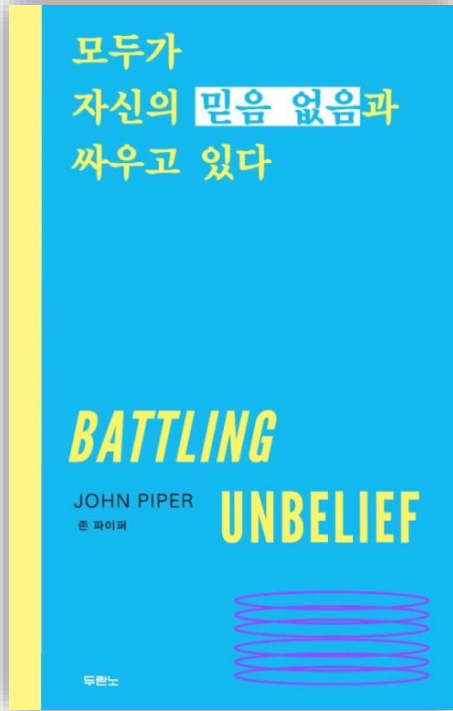
-울산시티병원 신장내과-





가을 독서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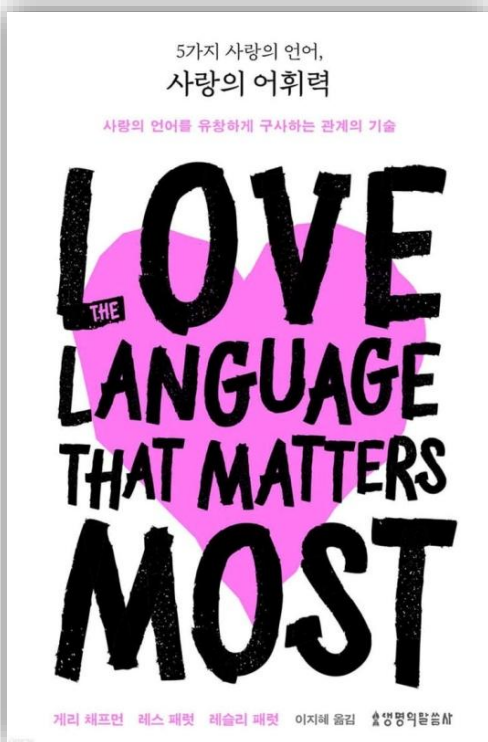
《모두가 자신의 믿음 없음과 싸우고 있다》 존 파이퍼, 두란노



우리는 흔히 믿음이 부족해서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존 파이퍼는 묻는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지 못하고 있는가?”

염려와 조급함, 교만과 탐심, 낙심과 두려움... 저자는 우리의 일상적인 감정과 행동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이 자리하고 있음을 짚어낸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며, 오늘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묻게 한다. 믿음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작은 용기인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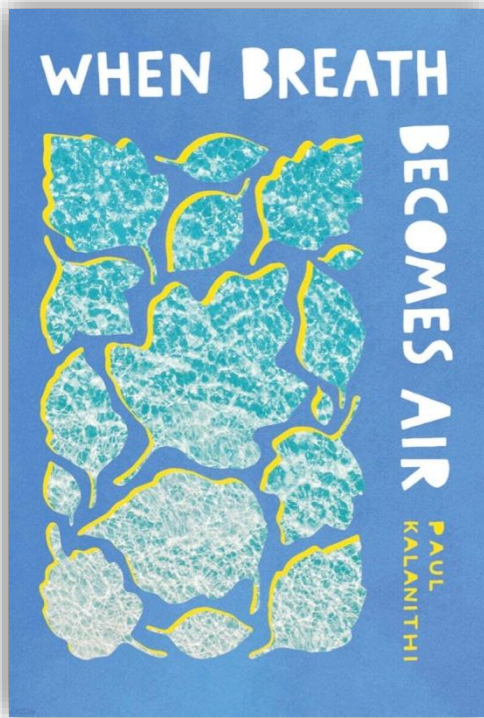
《5가지 사랑의 언어, 사랑의 어휘력》 게리 채프먼 외, 생명의말씀사



나는 사랑한다고 표현했는데, 왜 상대는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낄까?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 상대가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을 알아가는 것. 이 책은 관계가 엇갈리는 이유를 돌아보고, 서로의 마음을 더 세심하게 읽고 표현하는 법을 알려준다. 어쩌면 사랑은 마음이 아니라 배워야 할 언어인지도 모른다.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한다.

《숨결이 바람이 될 때》 폴 칼라니티, 흐름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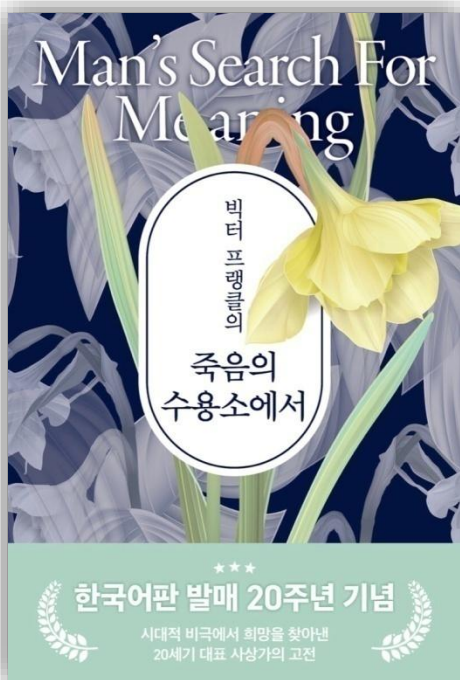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삶은 어떤 의미일까.

신경외과 의사로서 누구보다 죽음이 가까이에서 살아온 저자는 서른여섯의 나이에 자신이 말기 암 환자가 되면서, 삶의 의미와 사랑, 가족, 그리고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게 된다. 이 책은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기록**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오히려 오늘의 삶이 선명해진다. 『숨결이 바람이 될 때』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 조용히 묻는 책이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 청아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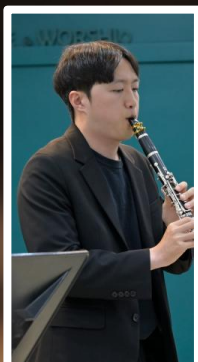


삶의 모든 것을 빼앗긴 순간에도 인간에게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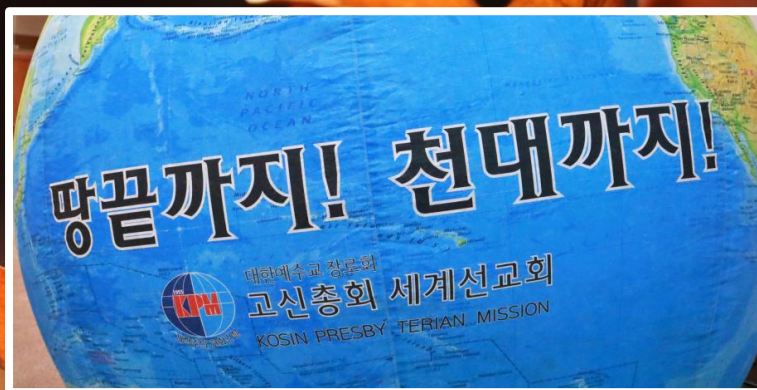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겪은 참혹한 경험을 담담하게 기록하며,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는 인간의 의지**를 이야기한다. 이 책이 오래도록 사랑받는 이유는 절망을 미화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에게는 자신의 상황을 대하는 **태도를 선택할 마지막 자유**가 있음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때때로 “왜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다. 어쩌면 이 책은 그 질문에 답하기보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조용히 등을 밝혀주는 듯하다.

교육목자 컨퍼런스 / 싱글 행나모



KPM과 함께하는 선교 축제



상반기 삶공부 수료 / 싱글 태국 선교



파워틴 일본 / 비전틴 국내 비전트립



복음의 씨앗이 튀르키예에



하타이 사만다의 (수리아안디옥) 지진 난민촌 - 2023년 2월

김성령, 탁은혜 선교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너 예배할 수 있겠니?”,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 너 찬양할 수 있겠니?”,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 너 기도할 수 있겠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슬림을 품고 싶었습니다. 99.8%가 무슬림인 나라, 보스포루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아시아의 땅끝과 유럽의 땅끝을 품고 있는 이스탄불, 튀르키예로 2021년 저희 가정은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직업군인(해군 부사관)과 직장 생활(건축업), 인테리어 사업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튀르키예에서 자비량 선교사로 사역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계획은 계획일 뿐,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 우리의 사역을 열어가셨습니다.

1. 성지순례 사역(튀르키예,그리스,이집트)

첫 만남은 재정적인 문제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까 깊이 고민하던 그때 이스탄불 성지 연구소 김진산 박사(터치 바이블 선교회 대표)와의 만남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성지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튀르키예 동부(아라랏산, 티그리스강,

열방을 향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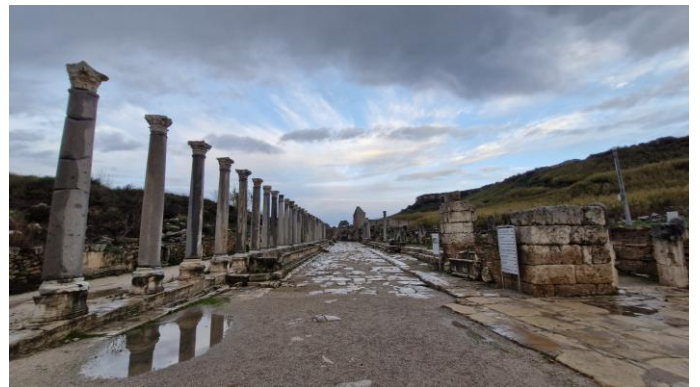
유프라테스강, 하란, 갈그미스 등)와 중부(갑바도기아, 길리기아, 수리아 안디옥, 다소, 밤빌리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등), 서부(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알렉산드리아 드로아, 앓소, 밀레도 등) 지역을 오가며 성경의 땅을 연구하고, 성경의 땅을 찾는 성지순례자들과 함께 그 내용을 나누며 성경의 땅을 함께 걷는 일은 제게 귀한 사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CGN팀 ‘바울로부터’, 국내 신학대학 교수님 그룹과 학생 순례팀, 여러 교단의 목사님 그룹과 교회팀 등 지금까지 76개 팀을 모시고 이집트와 그리스, 튀르키예의 땅을 함께 밟으며, 말씀과 함께 걷는 순례사역의 길을 은혜 가운데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스탄불 성지 연구소 (성지 순례 사역)

이 사역을 향한 열정은 이집트에서의 첫 경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집트 여행사 대표가 성지순례만 안내하기로 한 제게 안내자의 부재로 일반 투어팀을 하루만 맡아달라는 부탁의 전화를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제안을 거절했지만 간절한 부탁에 조건을 제시하며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는 것이

었고, 둘째는 목사가 아는 것은 성경 이야기뿐이니 성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집트를 소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고 이집트에서 있었던 아브라함 이야기, 엘리야 이야기, 예수님 피난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등 성경 이야기로 이집트를 하루 온종일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페르게 고대도시의 열주대로

하루의 일정이 끝나는 시점에 “오늘 목사 가이드를 만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쩌면 평생 들을 성경 이야기를 다 들으셨을 텐데, 꼭 한 가지 ‘예수’라는 이름 하나만이라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마이크를 내려놓고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제일 뒷자리에서 한 중년의 여성분이 앞으로 나오셔서 제 손을 잡고는 “목사님, 한국 돌아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만 안내하는 목사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일반 투어팀에 보내셨나 봅니다. 어느 교회 다니시나요?” 여쭙었더니 “저는 000교회 잡사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목사 손 붙잡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는

잡사는 없습니다. 집사님, 너무 귀하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고는 그분을 위해 진심을 다해 기도해 드렸더니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제 손을 적셨습니다. 그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였고, 성지순례 사역에 전심을 다해야 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하타이 사만다의 지진 피해지역 사역

2023년 2월 6일 규모 7.8의 강진이 튀르키예 하타이 지역을 강타하면서 사망자 6만 명 이상, 부상자 수십만 명, 건물 붕괴 및 손상이 50만 채 이상, 실향민 수백만 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하타이 지역은 안타키아(고대 수리아 안디옥) 시내 대부분이 붕괴되는 등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고 얼마 후 많은 현지 선교사님들과 구호단체 구조 인력들이 하타이 사만다의 마을을 찾았습니다. 저는 하타이에서 30년 넘게 사역해 오신 드보라 선교사님(스페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요청으로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볼칸이란 친구의 가정이었는데, 볼칸은 평생 모은 전 재산으로 건물 1층에 세차장을 시작했지만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강진이 발생하면서 세차장 뿐 아니라 삶의 터전인 집마저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틀 뒤에 그의 딸 엘리프가 태어났습니다.

엘리프가 잘 자랄 수 있을까 걱정하며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제게 이 아이를 품게 하였고, 지금까지 엘리프 가정을 도우며 드보라 선교사님과 함께 그 주변 많은 가정들을 돌아보고 협력하며 후원하는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만남 - 엘리프



엘리프 가정 현재 모습

지진 피해 지역을 돕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작은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미션 펀드’를 통해 저희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67명의 성도님들께 기도 편지를 올렸습니다. “커피 한 잔, 식사 한 끼를 금식하며 만 원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 주십시오.” 편지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계좌에는 67만 원이 아닌 1,500만 원이라는 놀라운 액수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숫자로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이 헌금 앞에서, 저희는

열방을 향하여

이것이 성도님들의 정성을 넘어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랑은 지진피해 지역 난민들에게 임시 텐트와 구급 물품이 되어, 무너진 삶의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3. 시리아 난민 사역



컴퓨터 교실 사역 현장

이스탄불 유럽지구 ‘에디쿨레시’라는 마을에 시리아 난민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십수 년 전 이곳 튀르키예로 이주해 와서 난민 생활을 힘겹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세 분의 선교사님이 함께 협력해 작은 시리아 난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중·고생 약 80명의 아이들과 약 20명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음악, 미술, 한국어,

영어, 컴퓨터 등을 통한 교육 사역과 한국 음식, 한국 문화, 한국 노래 등 한국 문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탁은혜 선교사님이 진행하는 컴퓨터(엑셀, 파워포인트) 교육은 고등학생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4명으로 시작된 컴퓨터반이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소문이 나면서 아이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노트북이 모자라 한 대 앞에 2명 혹은 3명이 함께 보며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후원자들의 협력으로 노트북이 채워져서, 지금은 한 사람당 한 대의 노트북을 사용하며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저희 센터 아이들과 함께 센터가 시작되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성탄절 축하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활동들은 한국에서는 전혀



성탄 축하 행사 준비

문제없는 활동이지만, 튀르키예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에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세 분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성탄절 축하행사를 준비하였고, 부모님들도 모시고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등학생들에게 기타를 가르쳐 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복음송을 함께 부르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복음송을 함께 부르던 중 한 아이가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부모님께 사랑을 받아 보지 못했고, 학교에서도 시리아인이라는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했고, 동생들마저도 나를 몹시 괴롭게 했다.” 그런데 이 복음송을 부르며 자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모를 원망하고 친구들을 미워했고 동생들을 귀찮아했는데, 이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동생들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복음송 가사 한 구절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화 감동 시



성탄 발표회

키시니,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시리아 내전이 끝남으로 인해 이들의 가정도 하나둘 시리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 땅이 여러 가지로 결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시리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튀르키예로 돌아오는 가정도 있습니다. 십수 년 동안 이어진 내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이 폐허가 되었고, 곳곳에 떨어진 불발탄을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가 폭발하여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수많은 위험물로 인해 안전사고들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임을 깨닫습니다.

튀르키예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1. 99.8% 무슬림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독교의 성지,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이stanbul)을 중심으로 다시금 복음의 씨앗이 튀르키예 땅에 심어지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음으로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도 속히 이르게 하옵소서.

2. 하타이 사만다르 지진 피해 지역에서 아직도 힘겹게 삶을 살아내고 있는 현지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고, 삶을 살아내기 위한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도록 위정자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3. 시리아 내전이 종식됨으로 인해 시리아 난민들이 하나둘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는 오랜 내전으로 인해 아직은 결코 안전한 땅이 아닙니다. 난민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되어 평안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시리아로 돌아가 복음을 품은 그루터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4. 튀르키예에는 등록된 시리아 난민뿐 아니라 불법 난민들도 많습니다. 튀르키예를 지나 목숨을 걸고 유럽으로 탈출하는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명 또한 지켜 주시고 인도적 지원과 대책이 마련되어 비참한 희생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5.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파송되어 튀르키예 땅을 밟으며 헌신하고 계시는 약 1,000명의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자녀들의 학업의 길을 열어 주시고, 기도하며 협력하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건희
(5월 17일)



이원영
(5월 17일)



장선인
(5월 24일)



임순례
(5월 31일)



Lam
(5월 31일)



민예지
(5월 31일)



김정우
(5월 31일)



전성일
(6월 7일)



이명자
(6월 7일)



양재성
(6월 7일)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안차영
(6월 7일)



양찬벌
(6월 7일)



양은벌
(6월 7일)



송지영
(6월 14일)



박병욱
(6월 14일)



이영남
(6월 21일)



육미옥
(6월 21일)



이성현
(6월 21일)



노은혜
(6월 21일)



민가은
(6월 28일)



도안아우
(6월 28일)



곽동욱
(7월 5일)



김영현
(7월 12일)



이예찬
(7월 12일)



안수현
(7월 19일)



박매림
(7월 19일)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임채현
(7월 19일)



최은혜
(7월 26일)



한태희
(8월 2일)



김주희
(8월 9일)



김종연
(8월 9일)



한미혜
(8월 9일)



이동환
(4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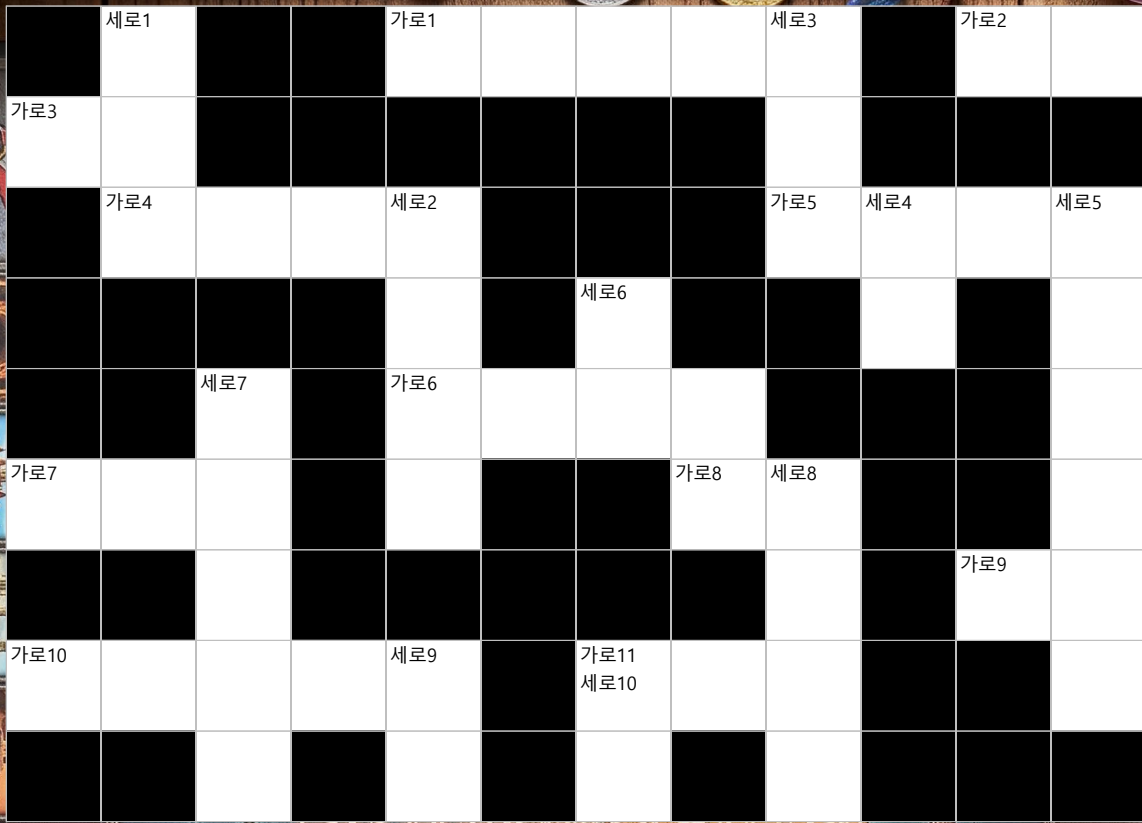
울산시민교회를 지인 없이 혼자 방문했음에도 따뜻하게 맞이해주시고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분이 도와주셨습니다. 덕분에 좋은 목장에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신앙생활을 해 오다가 100명이 넘는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비슷한 고민과 가치관을 가진 분들과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조언해 주는 공동체가 있어 큰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시간대에 예배와 삶공부가 마련되어 있어, 교대근무를 하는 저에게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했습니다.

저처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갈 교회를 찾지 못해 고민하는 분들께 울산시민교회를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누리아 퀴즈 ~ 가로 세로 퍼즐



가로 1. 상대를 대하는 두 가지 방식, 철학자

가로 2. '웅달샘'에서 그림책을 읽어줌

가로 3. 하나님의 헤세드는 감사의 ○○

가로 4. 신장건강 확인 방법

가로 5. 비전틴 황영서 자매가 매일 쫓겼던 것

가로 6. 폴 칼라니티의 직업

가로 7. 튀르키예 지진피해로 수백만명이 생김

가로 8. 임순례 성도님께서 평생을 해온 것

가로 9. 드림키즈 서래언 학생이 재미있었던

세 가지 중 첫 번째

가로 10. 교회의 헬라어 어원, 건물이 아님

가로 11. 세린 도서관이 울산시 작은도서관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는 주기

세로 1. 경암 (힌트 : 7주차장)

세로 2. 임순례 성도님께서 매일 아침 읽는 것

세로 3. 서부지역 성지 순례지 중 하나

세로 4. 무릇 ○○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세로 5. 신장 혈액검사서 꼭 확인하는 것

세로 6. 어린이영어예배 대부분 일정의 장소

세로 7. 1200회 달성!

세로 8. 하타이 지역에서 피해가 컸던 난민촌

세로 9. 킹즈베이비 교사들의 화답

세로 10. 소박한 방담, 은밀한 ○○과 풍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010-6638-0606 (문자 접수) ?!
(답장이 없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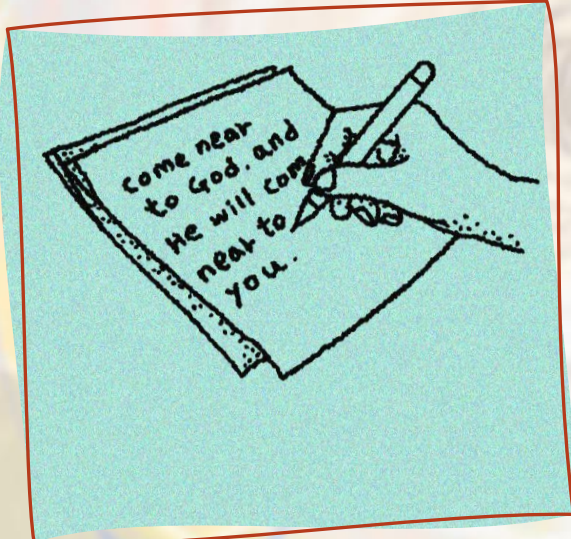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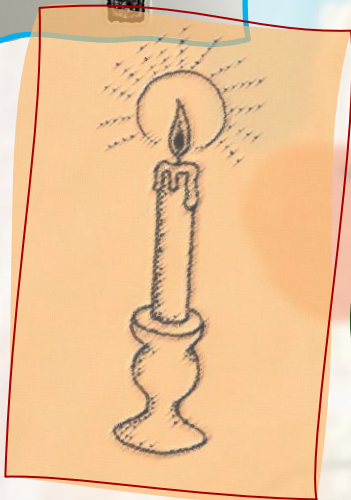
<지난 호 당첨자>

장선인, 이효신, 정윤하
조보성, 조은영, 김보배

😊 축하드립니다~~ 😊

사무실에서 선물을 수령해 주세요!!

편집 후기 | 묵상



진형: [갈라디아서 5: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태순: [시편 119:56]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라

영두: [이사야 1:13]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은영: [로마서 16:19]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대한: [사사기 19:20]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유림: [야고보서 2:8]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수진: [히브리서 11: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현욱: [시편 118:17]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승업: [창세기 12: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민희: [잠언 3:5-6]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병국: [신명기 16:20]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현화: [야고보서 1:4]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희: [로마서 5: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다빈: [빌립보서 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인혁: [잠언 12:15]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편집 후기 | 묵상



울산시민교회

▶ 예배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목장 연합예배	1부	오전 07:30	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 09:30	본관 3층 예배실
	3부	오전 11:45	본관 3층 예배실
	4부 싱글(청년) 예배	오후 02:00	교육문화센터 3층 다솜울
주일학교 예배	킹즈베이비(영아부, 4세 이하)	오전 11:30	본관 1층 우측 예배실1
	킹즈키즈(유치부, 5~7세)	오전 11:30	본관 1층 우측 예배실2
	예닮키즈(유년부, 초1~3학년)	오전 11:30	교육문화센터 2층 마루홀
	드림키즈(초등부, 초4~6학년)	오전 11:30	교육문화센터 4층 알음울
	어린이영어예배(VIEW)	오전 09:30	교육문화센터 6층 예배실
	파워틴(중등부)	오전 11:30	교육문화센터 3층 다솜울
	비전틴(고등부)	오전 09:30	교육문화센터 3층 다솜울
	소망부(장애인)	오전 11:30	교육문화센터 6층 예배실
	실버대학	수 오전 10:00 / 봄,가을 학기	본관 2층 소예배실
	몽골예배	오후 05:00	주차사무실 2층
	베트남 모임	주일 3부 예배 후	본관 2층 상담실
기도회	수요기도회	오후 07:30	본관 3층 예배실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05:30	본관 3층 예배실
	중보기도회	매일	중보기도실
	주일중보기도회	주일 2부 3부 예배중	주일중보기도실
	어머니기도회	목 오전 10:30 / 봄, 가을 학기	교육문화센터 6층 예배실
	온가족새벽기도회	오전 06:00 / 매월 첫주 토요일	본관 3층 예배실

▶ 오시는 길



▶ 예수님 영접모임 안내

울산시민교회 예수님 영접모임

※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일시

주 일 - 오후 02:00
수요일 - 오전 10:00
토요일 - 오전 10:00

장소

울산시민교회
본관 2층 새가족실

문의

강현수 목사
(070-7123-0232)